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달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291호 2025년 04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썬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사)미래복지경영 제69차 포럼

"인구절벽을 넘어서는 가족정책의 힘 변화하는 시대의 가족센터 역할 재정립"

|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주최·주관 | 국회의원 김한규의원실(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한국가족센터협회

SSFP 한국가족정책학회

후원 | (사)세계교육문화원 WECA

"국민의 가족센터 접근성과 가족서비스의 체감도 높일 것"



▲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장이 제9대 한국가족센터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사)한국가족센터협회는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국의 가족센터 직원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윤성은 신임 회장을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10면) 송하성 기자

광역형 비자 제도, 정부가 아닌 경기도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곽미숙 경기도의원(고양)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광역형 비자제도 및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하고, 비자 유형 및 활용 대상의 다양화를 촉구한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가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의 기본 계획을 공개했으나 출입국의 국인정책본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 및 컨트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을 받는 이유는 출입국의 국인정책본부가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광역형 비자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현장 일손이 부족해 전문인력이라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특정활동 비자(E-7) 인력의 경우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데 그쳤다. 이 정도의 배려로 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인력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취업허용업종을 한정해 지자체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요청한 요양보호사 직종의 외국인력 도입 요구도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을 20%에서 30%로 완화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해당 지역 요양보호사 중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늘려준 것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곽미숙 의원은 "광역형 비자제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비자 요건 완화에 대해 법무부가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어, 광역지자체가 실질적인 주체로 운영되기 어렵다."며

"광역형 비자제도의 비자 유형 및 활용 대상을 돌봄, 관광, 의료 등 지역 특화산업 전반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인구의 감소와 생산인구의 이탈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광역형 비자제도의 중심을 지자체로 제도화하고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정부 주요기관 및 각 정당에 송부된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 또는 오마이뉴스를 검색하세요〉

송하성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7 오산 8~9 구리 10~11 남양주 12~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평택 22~26 용인 27~29 연천 30 과천 31 화성 32~36

중국어(Chinese) 中文 11, 17, 33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5, 6, 29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9, 23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5
영어(English) 9, 13, 17, 23

정책 Policy 1, 2, 34 생활정보 Information 3, 6, 7, 8, 19, 30 나의 학습 My Study 14, 18, 19, 25, 28, 34 보건 Health 15, 34 외국인주민 29, 35 도서관 Library 21 교육 Education 9 이주배경청소년 4, 32 비자 Visa 11, 13, 17 행사 Event 10 금융 Finance 5, 23, 33 미담 13, 17, 29
국제교류 7 주거 Residence 2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설협의체 구축 필요!

경기도의회,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곽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곽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은?

“지역사회에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고용주들이 외국인력을 많이 활용하는데 미등록 이주민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주들도 단속에 걸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광역형 비자 제도’를 발표했는데 중앙 정부가 컨트롤하는 것이 여전하고 지자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말로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특화한 비자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인구소멸지역이다. 의원님의 지역구는 인구소멸지역이 아닌데도 건의안을 낸 것이 놀랍다.

“지역사회의 일손 부족 현상은 인구소멸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 적지 않고 이런 업종에는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하다. 비자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력의 공급 확대를 넘어 지역 인구구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건의안에서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설 협의체 구축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

“비자제도 설계 등 필요할 때만 지자체와 법무부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협의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일손 부족과 국가균형발전이 것처럼 중요한 일이라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필요한 것, 그리고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전달되고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비자제도 개선에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가 해당 건의안을 심사한 4월 14일에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논의됐다.

이 안건들은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송하성 기자



경기 미래기술학교 9개 시군에서 개교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적합한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 분야 전문인력 500명 양성을 위해 ‘2025년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미래기술학교는 화성시에 소재한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운영해 왔으나 지역 내 대학교 등 특화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 고용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9개 시군은 지난해 7월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순차 개강 중인 시군별 미래기술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 ▲성남시는 가천대학교·한국폴리텍대학교·서강대학교와 협력해 시스템반도체 설계(팹리스) 과정 등 120명을 ▲과주시는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세미콘설계 20명을 ▲용인시는 경희대학교와 협력해 메타버스/실감미디어 20명을 교육하는 등 수원시·화성시·평택시·양주시·고양시·시흥시 등 9개 시군에서 500명을 양성한다.

15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2개월부터 8개월 과정까지 자격증 취득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훈련수당(월 80% 이상 출석)이 지급된다. 송하성 기자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경기도, 불법 중개행위 민·관 합동 점검 실시해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

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 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 4,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

점검은 도,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이뤄지며, 실효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함

게 추구한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감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신나고 즐겁게 자조모임과 동아리활동 참여해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동아리 및 자조모임 발대식 진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4월 8일 센터 4층 강의실에서 2025년 동아리 및 자조모임 발대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센터 운영위원장, 수원시청 관계자 등 내외빈과 동아리 및 자조모임 참가자 45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유경선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동아리와 자조모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좋겠다”며 “혹시 주변에 센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알려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3개 동아리와 3개 자조모임의 리더들이 나와 모임을 소개하고 활기찬 출발을 알렸다.

가야금 연주를 통해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가야금 동아리 ‘가락’을 소개한 장링링 리더는 “우리 동아리는 가야금 활동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의 교류를 확대하고 참여자의 자기개발을 지원한다”며 “1명의 자리가 남아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전통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요리동아리 ‘수다네식당’을 소개한 전클라우디아 리더는 “막상 여러분들을 만나니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다”며 “요리를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따뜻한 동아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라틴댄스 동아리와 필리핀, 우쿠렐레, 페이스 페인팅 자조모임이 소개됐다. 각 모임은 월 1~2회 운영되며 각각 약 10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

한다. 이날 행사에 대해 수원시청 관계자는 “다른 문화에서 생활했던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중에는 경찰 관계자가 ‘체류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하고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모르는 이주민들이 주의해야 할 생활상식 및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년 초 자조모임 발대식을 진행하고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즐겁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다문화가족들이 연중 자조모임에 활발히 참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수원시, 맞춤형 ‘일자리박람회’

수원시가 4월 9일 오후 2~5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수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50개 기업이 참여해 일대일 현장 면접을 거쳐 3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일자리를 찾는 수원시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올해는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박람회로 준비했다. 참여 기업들이 청년 146명(30개사), 중장년 31명(5개사), 시니어 45명(4개사), 장애인 32명(5개사), 여성 46명(6개사)을 채용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경기대·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이 참여하는 취업정보관 17개를 운영하고, 지문적성검사·퍼스널컬러(개인 맞춤형 색상) 진단·이력서 증명사진촬영 등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오후 1시에는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 101~102호에서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미지 전략’을 주제로 취업특강을 열고,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5개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채용설명회가 진행된다.

문의 031-228-3273 송하성 기자

수원수목원, 5월 ‘야간개장’ 한다

수원시가 5월 한 달간 일월·영흥수목원에서 ‘밤빛 정원’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푸른 힐링의 밤을 선사한다.

5월 2일부터 3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은 야간에 개장한다. 주제 정원 온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입장 마감 오후 8시 30분), 방문자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을 연다.

‘밤빛 정원’ 기간에 야간경관 속 산책 프로그램과 밤에 빛나는 나의 화분 만들기(밤빛나), 수원이 포토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야간개장 첫날인 5월 2일(일월)과 마지막 날인 5월 31일(영흥)에는 풍선쇼, 음악공연 등 문화행사도 마련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연과 빛이 어우러진 특별한 야간정원을 준비했다”며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문화행사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문의 031-228-4564 송하성 기자



이주배경 청소년 주도성 향상

수원글로벌청, '리더십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운영 주 요셉 센터장, 이하 센터)는 2025년 이주배경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자기 이해를 도와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내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리더십 역량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과정으로 총 8회기 전문교육과 자치활동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문 강사와 함께 셀프 및 관계 리더십 교육(자기관리,

의사소통 능력 등)을 통해 자기계발과 자기주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7월 대인관계 형성과 팀활동을 위한 캠프에 참여하며, 8월~12월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송년회 기획 및 운영을 목표로 자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운영 기간은 4월 22일(화)부터 6월 17일(화)이며, 매월 2~3회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리더십 교육은 무료이며, 인생 목표 설정을 희망하는 17세~24세 이주배경 청소년(중도입국, 다문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swglobalyouth.com) 내 On-tact 상담 또는 070-4125-3310로 문의하면 친절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수준별 한국어교육 실시해요

수원글로벌청, '훈린(隣,이웃)정음' 수업 진행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14세~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춘 한국어교육 '훈린(隣,이웃)정음'을 상시로 운영한다.

이웃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린(隣,이웃)정음'은 입국 초기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준별 한국어 교육이다.

올해 한국어교육 '훈린(隣,이웃)정음'은 6주 단위로 운영하며 ▲자모반 ▲초급1반~3반 ▲중급반으로 나눠 수준별 한국어 학습을 제공한다. 또한 특강반(단어, 회화반)을 별도로 개설하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어 어휘력 및 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운영한다.

이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1일 2시간(최대 4시간) 수업참여가 가능하며, 한국어 담임교사들이 상주하고 있어 한국어교육 뿐 아니라 학생 및 보호자 대상 교육 외 생활 및 체류비자 상담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학령기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교육 진입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한다.

센터 관계자는 "훈린정음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및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자신의 미래를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또는 공교육 진입 전 이주배경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수업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전화(031-247-1324) 또는 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동반하면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2025년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 떠나는" 리더십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 4월 3일(목) ~ 4월 16일(수)

교육기간

2025년 4월 22일(화)~ 6월 17일(화)
(월 2~3회/ 매주 화요일 15:00~17:00)

교육내용

- 8회기에 걸친 나를 알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기 위한 리더십, 대인관계 교육 진행
- 리더십 캠프

문의사항

070-4125-3310 정착지원팀 김소라 사회복지사

모집대상

- 내 인생 목표 설정을 위한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17세~24세 이주배경 청소년 총 25명

신청방법

- 전화 및 센터 방문 신청
- 홈페이지 on-tact 상담 신청

수준별 한국어교육 "훈린정음" 참여자모집

훈린정음이란??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제공해 언어 능력 향상 및 한국 사회의 초기적응에 도움을 주는 한국어 수업

모집대상 14~24세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주배경 청소년

모집기간 상시모집

수업기간 2025년 4월 14일(월) ~ 2025년 12월 12일(금)

수업장소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내 교육실

신청방법 초기상담 → 레벨테스트 → 훈린정음 수업 참여

접수 및 문의 031)247-1324 초기적응팀 박세현 사회복지사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Có thể sử dụng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trên di động’ tại 6 ngân hàng

Chính phủ Hàn Quốc cho biết bắt đầu từ ngày 21 tháng 3, người nước ngoài hợp pháp sẽ có thể sử dụng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trên di động’ để mở tài khoản ngân hàng và thực hiện các giao dịch tài chính.

Trước đó, Bộ Tư pháp đã bắt đầu cấp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trên di động (bao gồm thẻ thường trú và thẻ đăng ký cư trú)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ăng ký cư trú tại Hàn Quốc vào ngày 10 tháng 1 vừa qua.

Bất kỳ người nước ngoài nào hợp pháp từ 14 tuổi trở lên và sở hữu điện thoại thông minh mang tên mình đều có thể cài đặt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trên di động’.

Sau khi cài đặt ứng dụng ‘Chứng minh thư di động-모바일 신분증’ trên điện thoại thông minh, các bạn có thể nhận được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có gắn chip điện tử (IC) qua điện thoại thông minh hoặc qua mã QR.

Vừa qua, Bộ Hành chính và An toàn đã thiết lập ‘Nền tảng chung về ID di động’ dựa trên blockchain để xác minh danh tính trực tiếp và không trực tiếp một cách an toàn và thuận tiện, lần lượt với Giấy phép lái xe di động (tháng 1 năm 2022), Giấy chứng nhận thương binh di động (tháng 8 năm 2023) và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di động (tháng 1 năm 2025) sau khi trải qua những quá trình sửa đổi pháp lý và kiểm tra an toàn với các bộ ngành liên quan.

Theo đó, trong lĩnh vực tài chính và các cơ quan tài chính cũng đã tổ chức lại các quy trình và hệ thống kinh doanh liên quan để người tiêu dùng có thể giao dịch một cách thuận tiện và an toàn hơn.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ăng ký cư trú sẽ có thể đăng ký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trên di động’ và sẽ có thể sử dụng thẻ này để mở tài khoản và thực hiện các giao dịch tài chính tại 6 ngân hàng, trong đó có Shinhan, Hana, IM Bank, Busan, Jeonbuk và Jeju, bắt đầu từ ngày 21 tháng 3. Vàn hiện tại, ngân hàng

Jeonbuk cũng đã cho phép thực hiện các giao dịch qua gián tiếp.

Ngoài ra, 3 ngân hàng, trong đó có Woori, Gyeongnam và Gwangju, sẽ có thể sử dụng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di động cho các giao dịch tài chính vào tháng 4 tới, Ngân hàng Nonghyup vào tháng 5 và Ngân hàng Kookmin vào tháng 6 tới.

Khi số lượng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dài hạn tại Hàn Quốc vượt quá 2,04 triệu vào năm ngoài, nhu cầu về dịch vụ tài chính cũng đang tăng lên rất nhiều.

Hy vọng rằng với những biện pháp này, sẽ giúp các giao dịch tài chính trực tiếp và gián tiếp sẽ trở nên thuận tiện hơn.

Các cơ quan tài chính cũng sẽ có kế hoạch tiếp tục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như các tổ chức tài chính khác sử dụng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trên di động’ trong tương lai.

〈한글 기사 33면〉

파파야스토리

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โดยใช้“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บนมือถือ”ใน 6 ธนาคาร

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ประกาศว่าตั้งแต่วันที่ 21 มีนาคม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ขึ้นทะเบียนแล้วจะสามารถใช้“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บนมือถือ” เพื่อเปิดบัญชีธนาคารและทำธุรกรรมทางการเงินได้

ก่อนหน้านี้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เริ่มออก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บนมือถือ (รวมถึงบัตรผู้มีถิ่นที่อยู่ถาวรและบัตรลงทะเบียนถิ่นที่อยู่) ให้กั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ขึ้นทะเบียนแล้ว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เมื่อวันที่ 10 มกราคมที่ผ่านมา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ขึ้นทะเบียนและมีอายุ14 ปีขึ้นไปและมีสมาร์โฟนในชื่อของตนเองสามารถออก“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บนมือถือ” ได้

หลังจากติดตั้งแอปพลิเคชัน “대한민국모바일신분증 (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ประชาชนแบบดิจิทัลของเกาหลี)”ลงในสมาร์โฟนแล้ว จะสามารถออก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พร้อมชิป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IC) ได้โดยการแตะบนสมาร์โฟนหรือถ่ายรูปรหัส QR

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 กระทรวงความมั่นคง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รัฐกิจ

ได้จัดตั้ง “พื้นฐานร่วมสำหรับ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ประชาชนบนมือถือ”บนพื้นฐานบล็อกเชนสำหรับการยืนยันตัวตนแบบพบหน้าและแบบไม่พบหน้าที่ปลอดภัยและสะดวกสบาย และได้นำใบอนุญาตขับขี่มือถือมาใช้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 (มกราคม 2022), ใบรับรองทหารผ่านศึกมือถือแห่งชาติ (สิงหาคม 2023), และ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บนมือถือ(มกราคม 2025) หลังจากผ่านการแก้ไขกฎหมายและ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กับกระทรวงที่เกี่ยวข้อง

สอดคล้องกับเรื่องนี้ ภาคการเงินและหน่วยงานการเงินได้จัดระบบและขั้นตอนธุรกิจที่เกี่ยวข้องใหม่ เพื่อให้ผู้บริโภคสามารถทำธุรกรรมกับ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ได้อย่างสะดวกและปลอดภัย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ขึ้นทะเบียนแล้วซึ่งได้รับ “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บนมือถือ”สามารถใช้บริการดังกล่าวเปิดบัญชีและทำธุรกรรมทางการเงินได้ที่ธนาคาร 6 แห่ง ได้แก่ Shinhan, Hana, IM Bank, Busan, Jeonbukและ Jejuเริ่มตั้งแต่วันที่ 21 มีนาคม นอกจากนี้ ธนาคาร Jeonbukยังอนุญาตให้ดำเนินการ

ทางการเงินแบบไม่ต้องพบหน้ากันอีกด้วย

นอกจากนี้ ธนาคาร 3 แห่ง ได้แก่ Woori, Gyeongnamและ Gwangjuจะสามารถใช้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บนมือถือสำหรับธุรกรรมทางการเงินได้ในเดือนเมษายน Nonghyup Bank ใน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 และ Kookmin Bank ในเดือนมิถุนายน

เนื่องจากจำนว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ในระยะยาวเกิน 2.04 ล้านคนเมื่อปีที่แล้ว 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บริการทางการเงินจึงเพิ่มขึ้นเช่นกัน

คาดว่าจะมาตรการเหล่านี้โดยภาคการเงินและหน่วยงานด้านการเงินจะทำให้การทำธุรกรรมทางการเงินแบบพบหน้ากันและแบบไม่พบหน้ากันสะดวกมากขึ้น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ขึ้นทะเบียน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

หน่วยงานด้านการเงินมีแผนที่จะสนับสนุน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ขึ้นทะเบียนและใช้บริการกับ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อื่น ๆ สามารถใช้“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บนมือถือ” ได้ในอนาคต

〈한글 기사 33면〉

파파야스토리

STEP CLOSER TO IMMIGRATION



한발짝더가까이, 출입국 업무 속으로

2025 출입국 현장투어로 초대합니다.

Immigration Field Tour Awaits you!

바로원심실 (Express Service Cente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년 현장투어 일정 안내

3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4월
5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6월
7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9월
11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 카달란은 디자인서비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시행일 2025. 1. 10.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인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가능

2p

•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안내

Hướng Dẫn Đăng Ký Bảo Hiểm Y Tế Bắt Buộc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지역건강보험 당연 가입 요건

Điều kiện đăng ký bảo hiểm bắt buộc khu vực

가입대상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Đối tượng đăng ký :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kiều bào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외국인 지역가입 체류자격 코드				Visa người nước ngoài thuộc đối tượng đăng ký			
D-1	문화예술 Văn hóa nghệ thuật	E-1	교수 Giáo sư	F-1	방문동거 Thăm viếng người thân	H-1	관광취업 Lao động du lịch
D-2	유학 Du học	E-2	외화지도 Giảng viên ngoại ngữ	F-2	거주 Định cư	H-2	방문취업 Lao động nghề nghiệp
D-3	기술연수 Đào tạo kỹ thuật	E-3	연구 Nghiên cứu	F-3	동반 Bảo lãnh	G-1 (일부) (phần nhỏ)	기타 Visa khác
D-4	일반연수 Đào tạo ngôn ngữ	E-4	기술지도 Hỗ trợ kỹ thuật	F-4	재외동포 Kiều bào		
D-5	취재 Phóng viên	E-5	전문직원 Chuyên gia	F-5 (5E)	영주 Định cư vĩnh viễn		
D-6	종교 Truyền giáo	E-6	예술융합 Nghệ thuật,giải trí	F-6	결혼이민 Kết hôn di trú		
D-7	주재 Cty tổng bảo lãnh	E-7	특정활동 Kỹ sư chuyên ngành				
D-8	기업투자 Hợp tác đầu tư	E-8					
D-9	무역경영 Hợp tác thương mại	E-9	비전문취업 Lao động phổ thông				
D-10	구직 Tìm việc	E-10	선원취업 Lao động trên tàu thuyền				

- G-1(기타)는 G-1-6(인도적체류허가자),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가족)만 적용대상
G-1(Visa khác) là G-1-6(người được cấp giấy phép lưu trú nhân đạo), G-1-12 chỉ áp dụng cho(thành
viên gia đình của người có giấy phép lưu trú nhân đạo)

가입시기: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

Thời gian đăng ký: Cư trú tại Hàn Quốc trên 6 tháng

6개월 동안 출국 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

Trường hợp trong 6 tháng cư trú mà thời gian xuất cảnh dưới 30 ngày thì được xem là liên tục cư trú ở Hàn Quốc

1회 1개월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 가능

Trường hợp xuất cảnh trên 1 lần và cư trú hơn 1 tháng, có thể đăng ký sau 6 tháng kể từ ngày tái nhập cảnh

- 6개월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입국일의 다음 달부터 매달 1일
마다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함

Trường hợp xuất cảnh trên 2 lần trong 6 tháng và tổng thời gian lưu trú vượt quá 30 ngày, thời gian
lưu trú 6 tháng được tính vào ngày 1 hàng tháng bắt đầu từ tháng sau ngày nhập cảnh đầu tiên.

- 예외) 국내 입국 후 즉시 가입 대상 : 유학(D-2),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결혼이민
(F-6), 영주(F-5)(다만, 외국인등록 이후 가입 가능)

Ngoại trừ) đối tượng có thể đăng ký ngay sau khi nhập cảnh : Visa du học(D-2), visa học sinh từ
tiểu học-trung học phổ thông(D-4-3), visa lao động phổ thông(E-9), visa kết hôn di trú(F-6), visa
định cư (F-5) (lưu ý : có thể đăng ký sau khi đăng ký thẻ chứng minh người nước ngoài)

- 한국 출생 신생아 취득: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당시 지역가입자인 경우 출생한 날, 부 또는 모의 지역
가입자 취득일자가 출생일보다 늦을 경우 신생아의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Đăng ký cho trẻ sơ sinh tại Hàn Quốc:Trường hợp Ba hoặc Mẹ đã đăng ký bảo hiểm trước khi sinh
con, thì trẻ cũng được tính bảo hiểm từ ngày sinh, nếu đăng ký trễ hơn ngày sinh con thì tính từ
ngày ra chứng minh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trẻ

피부양자 가입요건 변경(2024. 4. 3. 이후)

Thay đổi điều kiện đăng ký dành cho người được hưởng bảo hiểm(Sau ngày 3. 4. 2024)

2024. 4. 3.이후 입국 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경우,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

Người nước ngoài hoặc người dân cư trú nước ngoài được tư cách hưởng bảo hiểm với trường hợp
nhập cảnh sau ngày 3. 4. 2024 và cư trú trên 6 tháng

※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즉시 취득

Ngoại trừ) đối tượng có thể đăng ký ngay sau khi nhập cảnh

- 배우자 Vợ hoặc chồng

- 19세 미만 자녀 Trẻ em dưới 19 tuổi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Visa du học(D-2), visa học
sinh từ tiểu học-trung học phổ thông(D-4-3), visa lao động phổ thông(E-9), visa định cư (F-5), visa kết hôn di
trú(F-6)

가입요건

Điều kiện đăng ký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Người nước ngoài và người nước ngoài gốc Hàn cư trú trên 6 tháng tại Hàn Quốc

6개월 동안 출국 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

Trường hợp trong 6 tháng cư trú mà thời gian xuất cảnh dưới 30 ngày thì được xem là liên tục
cư trú ở Hàn Quốc

- 1회 30일 초과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 가능

Trường hợp xuất cảnh trên 1 lần quá 30 ngày thì có thể đăng ký bảo hiểm sau 6 tháng kể từ ngày
tái nhập cảnh

예외) 국내 입국 후 즉시 가입 대상 : 영주(F-5), 결혼이민(F-6), 비전문 취업(E-9)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다만, 외국인등록 이후 가입 가능)

Ngoại trừ) đối tượng có thể đăng ký ngay sau khi nhập cảnh :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với visa
định cư (F-5), visa kết hôn di trú(F-6), visa lao động không chuyên môn(E-9) (lưu ý : có thể đăng ký
sau khi đăng ký thẻ chứng minh người nước ngoài)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Hướng dẫn đăng ký bảo hiểm y tế dành cho du học sinh

가입요건

Đối tượng đăng ký

유학생, 외국인 및 재외국민

Du học sinh, người nước ngoài và người nước ngoài gốc Hàn

가입시기

Thời gian đăng ký

체류자격 구분	적용시기	
Phân loại tư cách cư trú	Thời gian áp dụng	
유학(D-2), 초·중·고생(D-4-3) Du học(D-2), Học sinh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 (D-4-3)	최초입국 Ngày nhập cảnh đầu tiên	외국인등록일 Ngày đăng ký thẻ chứng minh người nước ngoài
	재입국 Tái nhập cảnh	재입국일 Ngày tái nhập cảnh
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D-4) sinh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D-4-3), tu nghiệp sinh(D-4)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Đăng ký sau khi nhập cảnh 6 tháng tính từ ngày nhập cảnh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Du học sinh gốc Hàn Quốc, kiều bào Hàn Quốc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Đăng ký từ ngày nhập học sau khi nhập cảnh(trường hợp nộp giấy chứng nhận nhập học)	

가족 인정 및 서류제출 기준

Tiêu chuẩn nộp hồ sơ và công nhận hộ gia đình

동일세대 인정기준

Tiêu chuẩn công nhận cùng hộ gia đình

-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한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만 19세 미만)

Vợ/chồng và con chưa thành niên(dưới 19 tuổi) cùng nơi cư trú (nơi ở) tại Hàn Quốc

가족관계 서류 제출기준

Tiêu chuẩn nộp hồ sơ chứng nhận quan hệ gia đình

2024년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서

Hướng Dẫn Sinh Hoạt Cho Người Nước Ngoài Năm 2024

1 서류발급

Cấp hồ sơ

- 가족관계
Quan hệ gia đình
- 혼인·이혼 사실
Xác thực hôn nhân, ly hôn

2 서류인증

Chứng nhận hồ sơ

- 국적국 외교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Xác nhận của sở
ngoại giao bốn quốc hoặc
xác nhận của Apostille

3 번역공증

Dịch thuật công chứng

-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Đính kèm bản dịch
công chứng tiếng Hàn

- 번역공증은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하며, 국적국에서 번역 공증받은 경우에는 번역본도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Có thể dịch thuật công chứng tại Hàn Quốc, trường hợp dịch thuật công chứng tại bốn quốc thì
vẫn bản dịch cần phải được xác nhận của bộ ngoại giao hoặc xác nhận của Apostille

가족관계 서류 유효기간

Thời hạn hiệu lực của hồ sơ xác nhận quan hệ gia đình

- 국내 서류: 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

Hồ sơ tại Hàn Quốc : 3 tháng kể từ ngày cấp

- 국적국 서류: 서류 발급일 또는 외교부(아포스티유) 확인일로부터 9개월

Hồ sơ tại bốn quốc : 9 tháng kể từ ngày cấp hoặc ngày xác nhận của bộ ngoại giao(Apostille)

※ 단, 혈연관계의 경우 유효기간 상관없이 가능

Nhưng, trường hợp giấy tờ quan hệ huyết thống thì không liên quan đến thời hạn

전자고지·자동이체 및 환급 사전 계좌 신청: 전화, 홈페이지, 센터, 지사에서 신청

Đăng ký số tài khoản nhận tiền hoàn trả, giấy bảo điện tử · chuyển khoản tự động :
đăng ký qua điện thoại, trang web, trung tâm, chi nhánh bảo hiểm

우편 대신 이메일 고지서 또는 모바일 고지서 신청 가능

Có thể đăng ký giấy thông báo qua điện thoại hoặc email thay thư bưu điện

자동이체 신청으로 편리한 납부·환급 사전 계좌 등록으로 빠른 지급

Được chi trả nhanh hơn và tiện lợi hơn khi đăng ký chuyển khoản tự động khi đóng phí · số tài khoản
nhận hoàn tiền trước

전자고지 신청 가능

Tải ứng dụng sau để đăng ký giấy
bảo điện tử

The건강보험 APP

아이폰(iOS)

안드로이드(Android)



문의

Liên hệ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전화 후 “6”번 누르면, 외국어 서비스 가능

Trung tâm khách hàng tổng công ty bảo hiểm y tế quốc dân : 1577-1000 nếu nhấn phím số 7 có thể
nhận dịch vụ tư vấn tiếng nước ngoài



"이주민의 고단한 삶 지원 감사해요" 수원이주민센터, 예수그리스도교회에 감사장 전달

수원이주민센터(공동대표 마킨 메이타)는 지난 4월 6일, 센터에서 외국인주민을 위한 김장행사를 진행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한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경기스테이크(회장 이해근)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예수그리스도교회는 매년 화성행궁 광장 옆 신흥와드에서 외국인주민을 위한 김장행사를 진행해 선주민과 이주민의 교류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수원이주민센터에 100인치 대형 모니터와 전자칠판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이 모니터는 현재 센터의 이주민 교육과 행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마킨 메이타 공동대표는 "후원물품을 받기 전에는 빔프로젝터를 사용했는데 전등을 끄고 커튼을 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지금은 필요할 때마다

바로 모니터를 켜 사용하면 되고 대형 화면으로 주목도가 높아 너무 좋다.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과 행사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교회 측의 지원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교회에서 지역사회 교류와 소통을 담당하는 배상혁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교회의 작은 노력이 이주민들의 교육과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니 기쁘기 그지 없다"며 "김장 행사 외에도 센터 이주민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영어,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 합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 경제적 취약계층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연 14만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11월까지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문화예술·국내관광·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한 가능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되며, 1인당 연 14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6세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 홈페이지(<http://www.mnuri.kr/main/main.do>)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있는 시민은 전화(1544-3412)로 재충전할 수 있다.

지난해 수원시는 문화누리카드 3만 3295매를 발급했고, 이용률은 89.33%에 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원 금액이 1인당 14만원으로 인상돼 더 폭넓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일본 후쿠이시' 벚꽃축제 공식 방문

수원시 대표단, 후쿠이시장과 만나 교류방안 논의



수원시 대표단이 2~4일 우호도시 일본 후쿠이시 공식 초청을 받아 '제40회 후쿠이 벚꽃축제'에 방문했다.

김인배 수원시 시민복지국장을 대표로 하는 수원시 대표단은 3일 후쿠이시청에서 시게루 사이고 후쿠이시장을 만나 두 도시의 시민 교류 사업을 공유하고, 향후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제40회 후쿠이 벚꽃축제와 후쿠이시 주요시설인 요코칸정원, 이치조다니 아사쿠라씨 유적지 등을 방문해 곳곳을 둘러봤다. 김인배 시민복지국장은 "두 도

시는 2001년 우호결연 이후 24년간 다양한 교류로 우호를 다져왔다"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대면 시민교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호 결연 25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교류가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이고 시게루 후쿠이시장은 "수원시 대표단 여러분께서 제40회 후쿠이 벚꽃축제를 찾아주셔서 축제를 빛내 주시고, 두 도시 간의 우정을 함께 기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는 수원화성문화제에서 다시 만나, 우호 결연 25주년을 함께 기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지난 3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 수원시 공공외교단(SCVA) 12기' 발대식을 열었다.

12기 수원시 공공외교단은 수원시 관내 또는 거주 대학생 16명(외국인 유학생 1명 포함)으로 구성됐다. 올해 12월까지 8개월간 외국인 대상 지역 이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온라인 콘텐츠 제작, 국제교류 행사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이지은 기자

수원시,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 지원...30일까지 접수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4월 30일까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 중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취약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 51~70세(1955년~1974년생) 여성농업인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을 받는다. 검진 희망자는 생명산업과 또는 주소지 구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원시 검진 지정병원인 화홍병원(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98)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1인당 검진 비용 22만 원 가운데 90%인 19만 8000원을 지원하며, 자부담금은 2만 2000원이다. 문의 수원시 생명산업과(031-228-3492)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오산시 정보 “확인하세요”

아동 돌보면 가족돌봄수당,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건강검진, 체험형 동화구연 등 안내



#가족돌봄수당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4월부터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기간을 기존보다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주민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수당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였으나,

4월부터는 신청 기간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확대된다. 돌봄 제공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제공되며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돌봄을 제공하는 친인척은 동일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웃 주민의 경우 같은 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아동복지과(031-8036-7875) 또는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무료 건강검진

오산시는 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주와 세대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 비용을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1961년~2005년생)

홀수년도 출생자와 6세 미만 영유아로 총 960명이다.

일반건강검진에는 신체 계측, 흉부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이 포함되며 성별과 나이에 따라 추가 검사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기 정신증 검사(20~34세 대상, 2년마다), C형간염 항체검사(56세), 골밀도 검사(60세 여성)항목 등이 추가된다.

영유아 검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월령별 검진 항목에 맞춰 진행된다. 검진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지정된 검진 기관에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서 검사받으면 된다. 지역별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험형 동화구연

오산시 초평도서관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형 동화구연을 운영한다.

‘체험형 동화구연’은 어린이들이 실제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몰입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체험형 동화구연은 개인 및 단체(관내 보육기관)로 나뉘, 개인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 단체는 화·목요일 오전에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오산시 교육포털 홈페이지(<https://www.osanedu.go.kr>)와 초평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osanlibrary.go.kr/chopyeong/index.do>)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초평도서관(031-8036-6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2025년 온가족보듬사업 - 가족 愛 프로그램

"미피와 마법우체통" 전시회 관람

접수기간

2025. 04.09(수) ~ 2025.04.18(금)

§ 관람일정

2025.04.26(토), 11:00 ~

§ 관람장소

인사센트럴뮤지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49, B1)
※ 관람장소까지 개별 이동

§ 관람대상

오산시 거주 취약·위기가정 30명
· 1순위: 본 사업 사례관리 대상 가정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3순위: 일반가정

§ 관람내용

- 미피 70주년 생일 기념전
- 아시아 최대 규모 미디어 전시
- 희귀한 오리지널 컬렉션
전시 소개 설명 링크 →

§ 신청방법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접수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신청
- "가족애 프로그램" 신청

※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 사전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중위소득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접수기간 내 담당자가 확인 전화 예정)

§ 참여확정

04.22(화), 14시 이후 개별 안내

§ 신청문의

가족지원 3팀, ☎. 031-377-9766



다양한 체험, 가족사랑 깊이!

오산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1회차 진행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애 프로그램’ 1회차를 오는 4월 26일 인사센트럴뮤지엄(서울)에서 진행한다.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애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자연스러운 대화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가족애프로그램 1회차는 <미피와 마법우체통 전시회> 관람이며, 오는 4월 18일까지 참가 신청받는다. 관람은 4월 26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오산시 거주 취약·위기 가정 30명 대상이며 미피 70주년 생일 기념전, 아시아 최대 규모 미디어 전시, 희귀한 오리지널 컬렉션 등을 관람하게 된다.

신청은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 신청-가족애 프로그램 신청)에서 받는다. 참여자는 4월 22일 오후 2시 개별 안내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오산시가족센터 가족지원3팀(031-377-9766)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가족상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오산시가족센터는 가족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상담사와 함께 유형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주민 누구나 연중 참여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간에 시간이 안되는 가족을 위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본 6회기 무료로 대면과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가족은 031-378-9766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가족 심리검사를 통해 가족관계 개선 및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가족, 마음을 잇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영의 기자

Gyeonggi-do, Free 1:1 Study Coaching Support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cruiting the 1st batch of ‘1318 On-Coaching’ learners

Gyeonggi Province is recruiting 800 learners for the first batch of ‘1318 Oncoaching’, an online learning support project, until the 30th to reduce the educational gap among youth and provide equal learning opportunities.

‘1318Oncoaching’, which began operation last year, is a project that provides AI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ustomized online learning content and 1:1 learning coaching to middle school students, adolescents of the same age, and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Gyeonggi Province. It provides a total of 9 learning support sessions tailored to each student’s level over a period of 2 months.

Starting this year, the support target has been expanded from middle school students and adolescents of the same age to high school freshmen, and the learning period has been expanded from once a week to twice a week to

provide more in-depth learning support. Students selected as learners will receive customized EBS textbooks and online lectures by level after undergoing AI learning diagnostic assessment and learning diagnostic tests.

Looking specifically at the support content, it includes ▲Identifying individual learning levels through AI learning diagnostic assessment ▲Provision of EBS textbooks and online learning content ▲Provision of 9 1:1 online learning coaching sessions (including 1 OT session) ▲Offline program to motivate career advancement (separate information to be provided later).

Learning coaches are assigned as excellent learning coaches selected by Gyeonggi Province and EBS. In addition, participating students ar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for various learning experiences such as university visits, intensive learning career growth camps,

etc. Youth who wish to participate can apply at the ‘1318 Oncoaching’ website (1318study.kr).

To apply, select Apply - Learning Coaching Support at the top of this homepage, click on ‘2025 1st batch learner recruitment’, enter your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click on ‘Easy target confirmation’. Gyeonggi Province plans to give priority to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basic livelihood recipients, residents of townships and counties, etc.) such as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Gyeonggi Province has selected EBS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as the learning operation organization this year, and will support full-scale learning coaching starting in May after recruiting students in March. The project will be operated from the 1st to the 5th period, and a total of 4,000 youths, 800 per period, can participate for free.

Hong Seong-deok, head of the Gyeonggi Province Lifelong Education Division, said, “I hope that more young people will be able to develop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through the 1318 On-Coaching project,” and “We will actively support students to increase their interest in learning and experience real achievements through customized learning support with professional learning coaches.”

Meanwhile, in a survey of participants in the ‘1318 On-Coaching Project’ last year, 86.1% of respondents answer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1318 On-Coaching helps reduce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90.3% answered positively to the question ‘It helps children prepare for exams, manage grades, and self-directed learning’. Inquiries: 1544-9936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파파야스토리

Школьник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тоже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грамме учебного коучинга! «1318 ОнКоучинг»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объявила набор 800 учеников на первый поток онлайн-программы учебной поддержки «1318 Он Коучинг»,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сокращение разрыва в образовании и предоставлен ие рав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обучения. Регистрация открыта до 30 апреля.

Запущенна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ограмм а «1318 ОнКоучинг»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учеников средних школ, подростков ана логичного возраста и учащихся 1-го кла сса старшей школы, проживающих в Кё нгид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редлагают ся персонализированные онлайн-курсы, разработанные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 го интеллекта (AI), а также индивидуал ьные учебные коуч-сессии. В течение д вух месяцев учащиеся смогут пройти д евять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учебных занятия й.

В этом году программа расширила охв ат: теперь участие могут принимать не только ученики средних школ, но и стар шеклассники (1-й класс). Кроме того, ча

стота занятий увеличена с одного до д вух раз в неделю для более глубокой у чебной поддержки.

Отобранные участники пройдут AI-диаг ностику знаний, после чего им будут пр едоставлены учебные материалы EBS и онлайн-лекции, адаптированные под и х уровень.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редусмотрено:▲ AI-диагностика знаний для определени я уровня ученик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ч ебных материалов EBS и онлайн-курсо в; ▲9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занятий с учебны м коучем (включая вводное занятие); О флайн-программы для повышения учеб ной мотивации и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допо 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будет предост авлена позже).

Учебные коучи проходят строгий отбор и назначаются провинцией Кёнгидо сов местно с EBS. Кроме того, учащиеся см 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различных образова 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таких как визит ы в университеты и интенсивные профо

риентационные лагеря.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1318 ОнКоучинг» (1318study.kr). Для регистрации необходимо выбрать «신청하기» (Подать заявку) → «학습코칭 지원» (Поддержка учебного коучинга) → «2025년 1기학습자모집» (Набор участник ов на 1-й поток 2025 года), ввести имя и номер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 я, затем нажать «간편대상확인» (Быстр ая проверка соответствия).

Приоритет при отборе будет отдан уча щимся из социально и экономически уя звимых категорий, включая детей из му 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олучателей ми нимального дохода и жителей сельских районов.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выбрала EBS (Коре йск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телерадиоком панию) в качестве оператора программ ы на 2025 год.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набо ра в марте учебные коуч-сессии начнут ся в мае. В течение года программа пр ойдет в пяти потоках, и всего в ней смо

гут бесплатно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4000 уч ащихся (по 800 человек на поток).

Хон Сон Док,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непре ры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до, отметил:"Надеемся, что программа «1318 ОнКоучинг» поможет большему ч ислу подростков развить навыки самос тояте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Мы будем актив 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их,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п овисить интерес к учебе и добиться ре альных успехов благодаря персонализ ированному коучингу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 ными наставникам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участников про граммы прошлого года:86,1% отметили, что «1318 ОнКоучинг» помог им сократи ть расходы на частное обучение; 90,3%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программа была полезна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экзаменам, управ ления школьной успеваемостью и разв ития навыков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обучен 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 ормации: 1544-9936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파파야스토리



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장이 제9대 한국가족센터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사)한국가족센터협회는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김한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소속된 이인선, 조은희, 김상욱, 김용만, 이연희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업협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특히 전국의 가족센터 직원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한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정부가 실무자와 함께 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가족센터 직원 여러분은 무척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국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현덕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많은 분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협회에서 마무리지 못한 일이 있지만 최선을 다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윤성은 신임 회장은 “국민의 가족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서비스의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구와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가족센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9대 한국가족센터협회는 ‘함께 성장하는 가족센터협회’를 목표로 한미영 수석부회장(서울시협회장), 박명호 부회장(경기도협회장), 정용아 부회장(대전시협회장), 장덕상 부회장(전라북도협회장), 정해복 감사(강원도협회장), 조은옥 감사(경상남도협회장)로 구성됐으며 지역센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협회가

될 것을 모든 임원들이 다짐했다.

인구절벽 시대, 해법 찾기

이날 이취임식 후에는 ‘인구절벽을 넘어서는 가족정책의 힘-변화하는 시대의 가족센터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정책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한은주 한국가족정책학회장(강북구가족센터장)의 사회로 막을 올렸다. 유재언 가천대학교 교수(한국가족정책학회 이사)가 '인구절벽을 넘어서는 가족정책과 핵심 전달체계로서의 가족센터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유 교수는 “현재 가족정책 인프라와 전달체계가 노인, 아동, 장애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센터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가족센터 사업

의 핵심 방향과 함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이에 맞는 가족센터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고선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한국가족정책학회 이사)는 가족센터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운영의 질적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 광역 가족센터 설치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대전시가족센터장은 현장 운영상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센터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절벽 사회의 해법으로 가족정책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할 가족센터의 역할을 다시 환기하는 자리였다.

포럼에서 한국가족정책학회는 한국가족센터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향후 이론과 실전을 아우르는 가족정책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캠페인

백경현 시장, 교육공동체 간 배려와 협력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4월 7일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지방자치단체 등 전체 구성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

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교육공동체 간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구리시도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존중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백경현 시장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구리시의회 김용현, 김한솔, 이경희 의원을 지목했다.

이지은 기자

산업재해 예방 합동점검해요

구리시, 산업재해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노동안전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3일 오후 1시 인창동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안전의 날’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 인식을 개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과 합동점검 등을 진행하는 행사로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이 매월 첫째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캠페인 대상 현장 여건에 맞춰 목요일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현장 점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자 구

리시와 남양주시, 고용노동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건설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 수칙 교육 ▲ 근로자 기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센터 안내 ▲현장 내 위험 요인 합동점검 및 강령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2021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하여 산업재해 우려 현장에 대한 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연간 614회의 점검을 통해 503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 내는 등 노동 현장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广域型签证试点项目”， 专业人才和留学生更容易入境



法务部今年4月2日公布了《新出入境移民政策》的核心课题“广域型签证试点项目”。“广域型签证审议委员会”的审查结果显示，共有14个广域地方自治团体被选定为广域型签证试点项目的实施对象。

简单来说，广域型签证试点项目就是为了让地方所需的外国劳动者更容易进入该地区，法务部将专门针对该地区放宽签证发放条件。

例如，如果京畿道需要产业技术人力，那么当相关领域的外国劳动者申请签证入境时，就会只针对京畿道放宽学历或工作经历等签证发放条件。

***广域型签证项目，要怎么做？**：法务部从去年12月开始到今年2月为止，以全国广域地方自治团体为对象征集了项目计划书，并与提交项目计划书的广域地方自治团体进行了沟通，制定了详细的项目方案。也就是说，法务部和广域地方自治团体共同设计了“广域型签证制度”。

法务部期待通过此举同时实现外国人的稳定定居和地区经济的活性化。广域型签证试点项目从4月2日开始。

***广域型签证事业，有哪些地方政府参与了？**：提交留学签证(D-2)相关项目计划书的广域地方自治团体有10处(首尔、釜山、仁川、光州、江原、忠北、忠南、全北、全南、济州)，提交特定活动签证(E-7)相关项目计划书的广域地方自治团体有6处(大邱、大田、蔚山、京畿、庆北、庆南)。特定活动(E-7)签证适用于除了熟练技能人力分数制(E-7-4)以外的专业职群(E-7-1)、准专业职群(E-7-2)、一般技能职群(E-7-3)等3个职群，共87个职业类别。

***广域型签证项目，E-7签证是如何运营的？**：特定活动签证(E-7)与

地区产业发展战略相结合，提出定制型签证条件的4个广域地方自治团体(1210名)被选定为示范项目对象。

首先，对于大邱，生命科学·机器人工程等相当于“大邱五大新产业领域”的企业引进专业人才时，将放宽学历及经历条件。京畿道决定，作为工学领域的技术人员、数据·网络专家等产业技术人才，如果韩语能力优秀，将放宽学历条件。

庆北对道知事指定的海外专科大学毕业的理工科人才放宽学历要求，庆南则对制造业领域海外子公司工作的技术人才放宽工作经验要求。

***广域型签证项目，D-2签证是如何运营的？**：留学签证(D-2)与地区重点产业相结合，提出定制型签证条件的10个广域地方自治团体(4420名)被选定为示范项目对象。

首先，对于首尔、釜山、光州、江原、忠北、忠南，为了培养半导体、机器人、AI、二次电池、生物产业等尖端产业人才，放宽相关学科留学生签证发放的财政条件(首尔除外)，对于首尔、江原、忠北、忠南，扩大允许兼职工作的时间，此外还允许部分地方自治团体(釜山、仁川、江原、全南)在学期中进行实习活动。

对于全北、全南、济州，为了确保根基产业、旅游产业等核心领域的人力，放宽签证财务条件并扩大兼职工作时间，全南则以取得资格证为前提，扩大可进行兼职工作的范围。对于仁川，决定扩大外国大学国内校园在校生的滞留时间上限(1年→2年)，为优秀留学生提供滞留便利。通过此次审议委员会选定的14个广域地方自治团体将与法务部合作，到2026年为止运营广域型签证试点项目。

法务部为了广域型签证制度的充实运营，计划实施成果评价，对▲广域型签证配额补充率▲社会统合政策参与率▲非法滞留率▲地区内外国居民构成比率等进行评价，必要时调整签证配额，决定是否继续项目等。〈한글 기사 13면〉

파파야스토리



남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주연)는 지난 4월 4일, ‘2025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서포터즈의 활동을 심의했다.

경기도비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남양주시 거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선배 다문화가족 서포터즈가 통역 및 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행정관서, 병원, 은행 등의 동행 및 통역을 지원하며 자녀양육, 사회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남양주시에는 현재 중국, 베트남, 우즈베

키스탄, 일본, 필리핀, 러시아 출신의 서포터즈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평균 400건~500건의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이주연 센터장, 김혜나 총괄팀장, 이지아 통번역지원사, 백지연 주무관, 정은비 담당자 등이 참석해 1분기 94건의 활동비를 심의하고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남양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단원들의 일상 지원 업무가 밤낮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이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남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준비교육 DIAT 과정 운영

남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주연)는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국폴리텍대학 남양주기술교육센터 컴퓨터실에서 총 11회기 동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취업준비교육)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자격증 과정을 운영한다.

한국어 능력 중급 수준 이상의 결혼이민자 14명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자격증과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만들기, 실전 모의고사 풀이 등의 교육을 받는다.

총 11회기 자격증과정을 마친 뒤에는 5월 24일에 진행되는 DIAT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다. 남양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 중 취업을 원하고 있다”며 “센터는 이러한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31-553-8211

송하성 기자

내 집 앞에서 열리는 벼룩시장, '2025년 남양주 점프벼룩시장'...다문화가족도 참여!

남양주시는 지난 12일 수동멀티스포츠센터에서 ‘2025년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수동면 권역장을 첫 개장해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점프벼룩시장은 남양주 시민이 직접 참여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교환하며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생활형 나눔장터다.

시민과 가족, 어린이집·유치원 등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나누며 경제 교

육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1회용품 없는 클린 행사장’을 운영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아 행사 참여가 어려웠던 시민들을 위해 동네 공원과 유희부지를 활용한 권역장을 15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점프벼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만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오는 4월 19일 왕숙천물놀이공

원에서 다산동 권역장, 4월 26일 늘들중앙공원에서 호평동 권역장을 차례로 개최하며, 혹서기를 제외한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점프벼룩시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점프벼룩시장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남양주시 누리집(www.nyj.go.kr) ‘시민참여’ 코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점프벼룩협회(031-591-2701)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 자녀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한 *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

모국어로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받는다!

문의전화 031-553-8211

- 지원 대상: 관내 교육기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및 다문화가족
- 지원 내용: 가정통신문,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 지원 방법: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 등
- 지원 언어: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기타 언어는 타 센터와 연계하여 번역만 지원 가능)
- 이메일 주소 및 문의: nyj8211@hanmail.net
베트남어: 031-553-8211
중국어: 031-556-8212
몽골어: 031-556-8211

남양주시가족센터: <https://nyjfc.familynet.or.kr>
남양주시 다산지길로16번길 95

2025년 양성평등기금사업

부모(양육자)교육 신청안내

자녀성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

- 모집기간
~ 2025. 4. 30(수)까지
- 교육일정
2025. 4월 ~ 9월 중 *자세한 일정은 기관별 협의가능
- 교육방법 및 내용
대면교육 (신청기관 교육장)
자녀성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교육/ 기타 희망 교육 등
- 신청접수(선착순 25기반)
QR 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 선정 → 일정조율 → 교육진행
- 교육비용 및 문의
무료교육 ☎ 031-553-8211

신청하기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 지원사업

꿈 베이킹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8세~13세(초등학생)

일정: 2025. 4. 26.(토) 11:00

장소: 쿠팡쿠팡 (다산역 근처)
*채팅장소 개별 이동

내용: 베이킹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문의: 031.556.8211

신청: 쿠팡코드
naver.me/GfCq9t9Z

산리오 쿠키, 보라주니

전문인력과 유학생이 더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법무부, 4월 2일부터 경기도 등 14개 광역지자체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법무부는 지난 4월 2일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발표했어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총 14개 광역지자체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어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쉽게 설명하면 각 지역이 원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지역에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법무부가 비자발급 요건 등을 해당 지역에만 완화해 주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 산업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도의 경우 해당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올 때 관련 학력이나 경력 등의 비자발급 요건을 경기도에만 완화해 주는 것을 말해요.

***광역형 비자사업, 어떻게 하는 거야?**
: 법무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의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와 소통하며 세부 사업 방안을 마련했어요. 즉,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광역형 비자 제도’를 함께 설계한 것이예요.

법무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4월 2일부터 시작됐어요.

***광역형 비자사업, 어떤 지자체가 참여했어?:** 유학 비자(D-2)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는 10곳(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이며, 특정활동 비자(E-7)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는 6곳(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이예요. 특정활동(E-7) 비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를 제외한 전문직군(E-7-1), 준전문직군(E-7-2), 일반기능직군(E-7-3) 등 3개 직군 총 87개 직종을 대상으로 해요

***광역형 비자사업, E-7 비자는 어떻게 운영돼?:** 특정활동 비자(E-7)는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4개 광역지자체(1,21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어요.

먼저 대구에 대해서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경기도의 경우 공학 분야 기술자, 테

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으로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경북의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에 대하여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의 경우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하여 경력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광역형 비자사업, D-2 비자는 어떻게 운영돼?:** 유학 비자(D-2)는 지역 역점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10개 광역지자체(442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어요.

우선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에 대해서는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서울 제외), 서울, 강원, 충북, 충남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부산, 인천, 강원, 전남)의 경우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전북, 전남, 제주에 대해서는 뿌리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의 인력 확

보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며 전남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시간제 취업 가능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인천에 대해서는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 대해 체류기간 상한을 확대(1년→2년)하여 우수 유학생에게 체류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14개 광역지자체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2026년까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돼요.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에요.

〈중국어 11면, 영어 17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영어,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 합니다.〉 파파야스토리

F-2 Visa Granted to Foreigner Who Helped people Evacuate During Wildfire!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ecided to grant a long-term resident (F-2) visa to Indonesian national Sugi Anto (31), who helped evacuate residents during the Uiseong wildfire.

In Korea, large-scale forest fires have occurred in 11 regions since March 21, causing significant damage.

Fires also broke out in Uiseong and Andong on March 22, and the fires continued until recently, causing significant damage and killing 22 people

Meanwhile, Mr. Sugi Anto, who works as a sailor in a

coastal village in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carried elderly people with difficulty moving on his back and evacuated them to a breakwater 300 meters away with other villagers when a forest fire that started in Uiseong-gun spread to Yeongdeok-gun.

At the time, many of the villagers, about 60 in number, were either staying at home or sleeping.

Mr. Sugiantto went inside the house and woke up the elderly, then carried seven of them out one by one.

Mr. Sugiantto explained, “The old lady couldn’t walk fast, so I went

home and carried her out.”

Mr. Leo, an Indonesian national who works in the same village as Mr. Sugiantto, also helped rescue the residents.

A 90-year-old villager who was carried on Sugiant’s back and evacuated said, “I fell asleep while watching TV, but woke up to a shout that there was a fire outside. When I looked outside the door, Sugiant was there, and I was able to escape the house on Sugiant’s back.” He added, “If Sugiant hadn’t been there, we would have died.”

A government official said, “We have decided to grant a special

contributor visa (F-2) to Indonesian nationals who helped evacuate elderly people during this wildfire,” adding, “We express our deepest gratitude to those who risked their own safety to save the lives of their neighbors.”

The F-2 visa is a very strict visa that allows you to work anywhere you want and invite your family to live with you. Mr. Sugiantto entered the country on a work visa eight years ago and has been working as a sailor. He is known to have children and a wife in his home country. His visa was set to expire in three years. 파파야스토리



남양주시가족센터

2025년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남양주시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서비스 유형** 통역, 번역, 정보제공
- 이용방법**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 등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지원내용** 한국어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 연락처** 베트남어: 031-553-8211
중국어: 031-556-8212
몽골어: 031-556-8211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기타언어에 대한 지원은 인근 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 문의사항** 031-553-8211 | nyj8211@hanmail.net
- 센터주소** 남양주시 다산로16번길 95



남양주시가족센터
NAMYANGJUSI FAMILY CENTER

2025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부모
교육

자녀양육상담
가족상담
정보제공



한국어

한국어교육
1~4단계
어휘, 문법 외



자녀
생활

독서 코칭
숙제 지도
사회성발달
학습지도 외

운영시간: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운영기간: 한국어, 자녀생활 - 1회(80회기)
부모교육 - 생애주기별 3회(40회기)

서비스 대상

부모교육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한국어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자녀생활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자녀

서비스 중지사유

지도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유발 및 무리한 요구
지원 대상가정 변경(이사, 가족구성원 반대 외)
지도사와 사전 협의없이 수업시간 3회 이상 어긴 경우
기타 시 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자 준수사항

일시중지 기간: 총 이용 회기 내 최대 4주까지
수업에 필요한 제반 환경(책상, 의자, 시간 준수 외) 협조

문의 및 신청 : ☎ (031) 553-8211



남양주시가족센터
NAMYANGJUSI FAMILY CENTER



남양주시가족센터
지구당에서
우리들하나

후원주점

다문화카페 알이랑
후원이 필요해

크흠..

뿌웅

다문화카페 알이랑 운영정상화를 위한 후원주점

다문화카페 알이랑은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공익카페입니다. 2009년 9월 처음 시작으로 올해로 벌써 17년째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공단재개발 문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다문화카페 알이랑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위한 후원주점을 개최하오니 함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5년 4월 26일(토) 14:00~21:00(마지막 주문은 20시까지입니다!)

장소: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실내체육관 /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2

문의전화: 031-594-5821

※ 후원계좌: 351-0986-0303-23 / 농협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지구당에서
우리들하나

Tindahan ng Sponsorship

Kailangan namin
ng Sponsor, para
sa Multicultural
Café Arirang

Huhu

Ang..Ang...

Sponsor para sa pagpapatakbo ng multicultural café arirang

Ang Multicultural Café Arirang ay isang pampublikong Café na nilikha upang tulungan ang mga babaeng imigrante na may asawa na makahanap ng trabaho. Ito ay nasa operasyon na sa loob ng 17 taon na pagpapatakbo nagsimula noong taong 2009 Setyembre, ngunit kamaikailan lamang ay nakakaranas ng mga kahirapan sa pagpapatakbo dahil sa mahihirap na kalagayang pang-ekonomiya at pang industriya na kumplikadong mga isyu sa muling pagpapaunlad. Kami ang may hawak ng isang sponsor upang makalikom ng mga pondo upang ang isang Multicultural Café Arirang na itinatag bilang isang mahalagang lugar ng komunidad para sa mga imigrante ay patuloy na gumana, Mangyaring makiusap sa amin

Petsa: Abril, 26, 2025 (Sabado)

magsisimula ng 2PM hanggang 9PM ng gabi ngunit ang huling pag-order ng pagkain ay hanggang 8PM ng gabi

Lugar: Namyangju City Migrant Welfare Center / Namyangjusi Hwado-eup Gagudanji-junganggil 2

Kung may katanungan tumawag lamang sa 031-594-5821

Sponsorship account: 351-0986-0303-23/ Nonghyup bank /

Namyangju City Migrant Welfare Center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같이 즐거우면, 좋은 거 아니야?

〈기고〉 양우철 남양주외복 상담사업부

저는 2024년 가을부터 남양주시의 국인복지센터에서 의료·노동·체류 상담을 거들고(?) 있는 양우철 활동가입니다. (별로 궁금하진 않으시겠지 만!) 요즘 취미는 이불 속에서 고양이 나오는 쇼츠 보기, 칸에 노래 들으며 산책하기예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 해외로 배낭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미쳐 다섯 차례 완주를 하기도 했고, 한겨울 일본에서 캠핑과 노숙을 하며 두 달간 떠돌기도 했죠.

남들이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을 때 배짱처럼 시간을 낭비한다는 주위의 걱정도 적지 않았지만, 저는 돌이켜보면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하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주 유창하진 않지만 영어도 스페인어도 적당히 하게 되었고,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체득했거든요. 적당히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도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낙천주의도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저 자신만의 즐거움과 자유를 쫓으며 이십대 후반에 들어서니,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들더군요. 스무 살 즈음엔 평생 떠돌아다니며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곰곰이 허무함의 근원을 파헤쳐보니 제 마음 속에는 항상 ‘나’만 있었지, ‘남’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세계 어디를 가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있었고, 이에 저는 막연히 무언

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죠.

그러던 중, 한국국제협력단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 지원 NGO에서 일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본국에서의 전쟁과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까지 왔지만 제대로 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도 못 하며,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이주민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었어요.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관련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외국인복지센터로서, 1991년에 세워진 살림의 집 시절부터 긴 역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주민 지원에 있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제게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열심히 발로 뛰고 공부하며 경험과 경력을 쌓아가고 싶어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들과 어울리며, 베트남어나 파갈로그어 같은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목표예요.

지역 사회 측면의 포부로서, 이주민들이 남양주시에 무사히 정착하여 선주민들과 어울리며, 자아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보다는 이상으로서, 우리나라가 젊고 역동적인 다문화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어요.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존중받고, 소수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열린 사회를 꿈꾸고 있어요.

〈자료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놀이·체험·공연 어우러진 놀이문화

남양주시, 상상N놀이터 놀이탐험대 본격 운영



남양주시는 4월부터 남양주형 어린이 놀이터인 상상N놀이터 3개소에서 영유아 참여형 프로그램 ‘놀이탐험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놀이탐험대는 남양주시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특화 프로그램으로, 상설 놀이시설에 놀이·체험·공연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담아내 영유아에게는 늘 새로운 놀이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작년에는 총 635명의 영유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그림책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25건과 창작 공연 3편이 운영돼 어린이들의 놀이터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남양주시는 올해도 남양주 소재 대학인 경북대학교 유아교육학과와 교수진과 4학년 예비 전문가들과 협력

해 사업을 이어간다. 4월 놀이탐험대는 10일과 24일에 운영되며, 그림책을 활용한 총 6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별내 북놀이터에서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 ‘난 완벽하지 않아’ △화도 놀자람에서는 ‘점과 선이 만나면’, ‘곰 사냥을 떠나자’ △호평 도르르에서는 ‘평범한 식빵’, ‘헛! 어떻게 알았지?’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놀이탐험대 60분과 자율놀이 60분으로 총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작년 영유아와 학부모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놀이탐험대를 운영하게 됐다”며 “상상N놀이터는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영유아의 창의적 놀이 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인 만큼 매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놀이의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상N놀이터 놀이탐험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상N놀이터 블로그와 남양주시 보육정책과 보육사업팀 031-590-89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건강검진 미루지 말고 바로 예약!

남양주시, 국가건강검진 수검 적극 독려



놓치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남양주보건소(소장 정태식)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는 시민들이 검진 예약이 몰리는 연말을 피해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암, 일반)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전국의 건강검진 지정 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보건소 031-590-8417, 8397, 남양주풍양보건소 031-590-4064,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지구별에서 우리는 하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Tel. 031-594-5821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2

☎ 상담 신청!

임금 체불 | 고용허가제(EPS)
E-7-4 비자 | 의료 지원
생활 고충 | 정보 제공

“내외국인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참여해요”

광주시가족센터, 강사 OT 및 위촉장 수여...다문화 긍정적 인식 함양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3월 25일 광주시가족센터 어울림교육장 1층에서 ‘2025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 운영을 위한 강사 오리엔테이션과 위촉장 수여를 진행했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은 광주시 영유아 및 초·중·고생, 관내 내·외국인 대상으로 폭넓은 교육 및 다양한 나라의 문화체험을 진행해 문화의 다양성 인지와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광주시가족센터는

7개국 출신의 결혼이민자 강사 13명을 파견해 광주시 관내 26개 아동 기관 118회, 광주시와 하남시 33개 초등학교 494회기, 2개 중학교와 1개 고등학교 58회기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과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광주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비롯한 광주청소년·청년축제와 한마음 이주민 나눔 체육대회 같은 행사에서 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해 지역주민의 다문화 이해 촉진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이번에 진행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7개국 출신의 결혼이민자 11명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강사로 위촉했다. 이날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는 5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 운영과 강사 활동 준수 사항 등을 공유한 뒤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으로 2025년에도 광주시의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5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은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4월부터 총 20개의 아동 기관과 9개의 초등학교, 1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해 305회기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문화체험을 진행하게 된다.

광주시가족센터는 또한, 5월 4일(광주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개최되는 광주 다문화 어울림 축제 행사를 시작으로 광주시 관내 대규모 행사 참여를 통해 내·외국인 사회통합과 다문화 인식 함양을 위해 이바지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취업기초소양교육’

안정적 취업 기반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4월 2일과 4일 모두家어울림(역동 소재)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취업 관련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소양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취업 관련 제도 및 서비스의 안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으로 총 2회기 이뤄졌다. 특히, 취업 관련 제도를 소개하는 데에는 광주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함께해 교육의 효과성을 보다 높일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취업 준비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알게 되고 필수 서류를 준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취업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광주시가족센터

광주시가족센터에서는 방문지도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1:1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부모교육 서비스

- ⑦ 내용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동 양육 및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④ 대상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1) 임신·출산·영양기 (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2)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3)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12세 이하)
- ⑤ 교육 기간 약 5개월(40회기), 최대 3회 지원
※ 센터 한국어 교육과 중복 이용 불가

교육 시간 및 장소

주 2회, 회당 2시간(18시 이전) / 이용 대상 가정

이용료

소득 판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연도별 상이)

문의전화

광주시가족센터 ☎ 031-798-7137, 7141
(광주시 통미로 52번길 19)

모집기간

상시모집

유의사항

- ⑦ 동일 대상자에 지자체 유사 사업(센터 언어 발달사업, 방문학습지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④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⑤ 신청 후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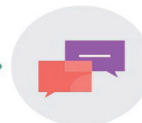
신청절차



광주시가족센터 내방(신청서 작성 및 홈페이지 가입)



대기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유형판정)



서비스 이용

‘Wide-area visa pilot project’ to make it easier for professionals and international students to enter the country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본격 시행

On April 2,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Wide-Area Visa Pilot Project,’ a key task of the ‘New Immigration Policy.’ As a result of the review by the ‘Wide-Area Visa Review Committee,’ a total of 14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were selected as targets for the wide-area visa pilot project.

To put it simply, the regional visa pilot project is the Ministry of Justice easing visa issuance requirements only for the region so that foreign workers who want to enter the region can enter without difficulty. For example, in the case of Gyeonggi-do, which needs industrial technology personnel, this means that when foreign workers in the relevant field receive a visa and enter, the visa issuance requirements such as related education or career experience are relaxed only for Gyeonggi-do.

***How does the metropolitan visa program work?:** The Ministry of Justice solicited business plans from metropolitan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from December of last year to February of this year, and developed detailed business plans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that submitted business plans. In other word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designed the ‘metropolitan visa system’ together. The Ministry of Justice expects that

this will simultaneously achieve stable settlement of foreigners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The metropolitan visa pilot program began on April 2.

***Which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d in the metropolitan visa program?:** There are 10 metropolitan governments (Seoul, Busan, Incheon, Gwangju,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Jeju) that submitted business plans for the student visa (D-2), and 6 metropolitan governments (Daegu, Daejeon, Ulsan, Gyeonggi, Gyeongbuk, Gyeongnam) that submitted business plans for the specific activity visa (E-7). The specific activity (E-7) visa targets a total of 87 occupations in 3 occupation groups: professional occupations (E-7-1), semi-professional occupations (E-7-2), and general occupations (E-7-3), excluding the skilled worker point system (E-7-4).

***How is the metropolitan visa program, E-7 visa, operated?:** The specific activity visa (E-7) was selected as a pilot project target for 4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1,210 people) that presented customized visa requirements linked to regional industry development strategies.

First, for Daegu, we decided to ease the academic and career requirements when companies that fall under the “Daegu 5 New Industry Fields” such as life sciences and robotics

bring in professional manpower. In Gyeonggi-do, we decided to ease the academic requirements when bringing in foreigners with excellent Korean language skills as industrial technology personnel such as engineering technicians and data/network experts.

In the case of Gyeongbuk, the governor decided to ease the academic requirements for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s from overseas vocational colleges, and in the case of Gyeongnam, the governor decided to ease the career requirements for technical personnel working at overseas subsidiari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How is the D-2 visa ope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student visa (D-2) was selected as a pilot project target for 10 metropolitan governments (4,420 people) that presented customized visa requirements in connection with local priority industries. First, for Seoul, Busan, Gwangju, Gangwon, Chungbuk, and Chungnam, the financial requirements for issuing visas for students in related departments will be relaxed (excluding Seoul) to foster talent in cutting-edge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robots, AI, secondary batteries, and bio industries. In addition, for Seoul, Gangwon, Chungbuk, and Chungnam, the allowable part-time employment hours will be expanded, and in addition,

some local governments (Busan, Incheon, Gangwon, and Jeonnam) have decided to allow internships during the semester.

For Jeonbuk, Jeonnam, and Jeju, we decided to ease financial requirements for issuing student visas to secure manpower for key regional industries such as root industries and tourism industries, expand the allowable hours of part-time employment, and in the case of Jeonnam, expand the scope of part-time employment based on the acquisition of qualifications. For Incheon, we decided to provide convenience for excellent international students by expanding the upper limit of stay for students enrolled at domestic campuses of foreign universities (from 1 year to 2 years).

The 14 metropolitan governments selected through this deliberation committee will operate a metropolitan visa pilot project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until 2026. The Ministry of Justice plans to conduct a performance evaluation to ensure the substantial operation of the metropolitan visa system, and will evaluate ▲metropolitan visa quota filling rate ▲social integration policy participation rate ▲illegal stay rate ▲ratio of foreign residents in the region, etc., and adjust the visa quota if necessary and decide whether to continue the project. <한글 기사 13면>

法务部计划赋予在海岸村背着7名老人避害撤离的外国劳动者F-2长期居留签证

韩国法务部决定向在“义城山火”中协助居民疏散的印尼籍男子苏吉安托(31岁)颁发长期居留(F-2)签证。

韩国自今年3月21日起在11个地区发生了大规模山火,造成了巨大损失。义城和安东也在3月22日发生火灾,火势持续至近日,造成22人死亡的巨大损失。

在这期间,任职于庆尚北道盈德郡某海边村庄的渔船员苏吉安托先

生,在山火从义城蔓延至盈德时,与村民们一起背负行动不便的老人,将他们疏散至300米外的防波堤。

当时约60名村民中,有很多人还在家中或熟睡。苏吉安托先生进入家中叫醒老人,并陆续背出了7人。

他说:“因为老奶奶走不动,我就去家里把她背了出来。”

同村工作的另一位印尼籍劳工雷奥先生也一同参与了居民的救援行

动。一位90多岁的村民回忆说:“我当时在看电视时睡着了,听到有人在外面喊着起火了才惊醒。打开门一看,苏吉安托就在门外。他背着我把我从家中救出来。如果没有他,我们可能就死了。”

政府相关负责人表示:“对于在此次山火中协助老人疏散的印尼籍劳工,将授予特别贡献者居留资格(F-2)”,并补充道,“我们对这些不顾自身

安危、拯救邻里生命的人表示深深的感谢。”

F-2签证是申请条件非常严格的签证,获得后可以在任何自己想工作的地方就业,也可以邀请家人一同居住。

据悉,苏吉安托先生8年前以就业签证入境,目前从事船员工作,在家乡有妻子和孩子。他的签证将在3年后到期。

과과야스토리

지역사회 함께 ‘문화역사탐방’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진로설계지원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4월 1일 향기로운 봉사회와 함께 강릉 오죽헌으로 문화역사탐방을 다녀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와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가정 자녀들의 문화적 소속감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탐방은 광남1동 통장협의회가 관광버스 대여비를 지원하고, 광주농협과 광주복지정책과에서 음료수와 빵을 후원했다. 또 향기로운 봉사회 이항용 회장이 바나나 한 상자를 후원해 풍성한 나눔이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산책의 시간이었다.

탐방에 참여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0명의 다문화자녀 및 외국인자녀들은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통해 조선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율곡 이이 선생과 조선중기의 여성화가이자 문사였으며 현모양처의 화신으로

기억되는 율곡 이이 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작품도 함께 감상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문화해설사와 함께 오죽헌을 둘러본 참여자들은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며 오죽헌에 담긴 다양한 역사를 담아냈다. 또한 ‘다음에는 세종대왕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라며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열정도 보였다.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먼 거리였던 이번 문화역사탐방은 초밥뷔페에서 이른 점심을 먹고 동해안 최대 해변으로 유명한 경포해변에서 모래 속 조개껍질을 줍고 인솔자들이 내준 팀 미션사진을 찍느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함께 간 광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뷔페에서 맛있는 식사와 경포해변을 수 놓았던 아이들의 환한 미소, 오죽헌에서의 진지한 모습은 향기로운 봉사회가 만들어 준 것들이다.”라며 “이번 동행에 함께 한 아이 중에는 처음으로 바다를 보고로 뷔페를 먹어본 아이도 있어 매우 소중하고 감사한 경험이 됐다. 이런 선물을 해준 향기로운봉사회 회장님과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문화역사탐방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향기로운 봉사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학교 적응 및 관계향상 지원

광주시가족센터, 초등 1학년·고학년 대상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4월 5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학교적응 백점 프로젝트’와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알콩달콩 마음나눔’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는 1학년 입학생들을 지원하고, 또래 관계가 중요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친구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좋아하는 것과 장점 등이 적힌 자신만의 이름표를 만들고, 그림 그리기와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배려’, ‘소통’, ‘정직’, ‘예절’, ‘존중’, ‘책임’, ‘협동’, ‘효’ 등 인성의 덕목을 퀴즈와 인터뷰 활동을 통해 배

우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초반에 어색함을 느꼈으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숙함을 느끼고 배운 덕목을 새 친구들과 함께 연습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수희 센터장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광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서비스 전문기관으로써 센터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평등·사랑·나눔 실천’으로 광주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그리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경기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녹색힐링 원예체험



*2020년생~2016년생

참여대상 관내 6세~초등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둔 6가정
(부모-자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우선 순위: 1. 품앗이 회원 가정
2. 신규 가정

신청기간 6/5(목) 10시 ~ 6/12(목) 23시

일시 6/17(화), 19(목) 16:00~18:00

장소 경기육아나눔터(대면)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923 산이리대주파크빌 108동 101호

내용 * 2회기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 활동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정 후 취소시 추후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됩니다.

회기	주제	세부내용	날짜	요일
1	테라리움 만들기	유리 화분에 다육식물, 색모래, 색돌을 활용해 공기정화에 도움이 되는 테라리움 만들기	6/17	화
2	반려 식물 심기	사계절 피는 꽃에 대해 알아보고 반려 식물 심기	6/19	목

신청방법 광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1. 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gggj.familynet.or.kr>)

2. 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3.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 원예체험 프로그램 신청

*부모, 자녀 각각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부모, 자녀 모두 신청 필수)

*참여 확정 안내문자 발송예정입니다.

문의전화 031-762-7142 (점심시간: 12:00~13:00)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이용안내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란?

광주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1대1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신규등록 지원	서포터즈가 센터 회원가입 안내
프로그램 이용 연계	서포터즈가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서포터즈가 함께 동행하여 통역 서비스 지원 (병원, 우체국, 은행 등) -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상담을 서포터즈가 함께 동행하여 통역 지원 - 어린이집, 학교 전화 상담 시 서포터즈가 함께 통화하여 통역 지원

신청방법

도움을 필요한 날짜의 최소 2일 전까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서포터즈에게 1대1로 연계해 드립니다.

지원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영어, 스페인어
- 해당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서포터즈 활동 이용 가능

문의처

070-4706-3733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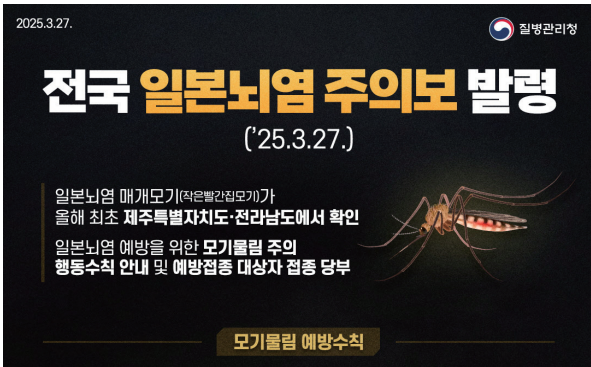
양평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하며 따뜻한 봄 맞이해요~

양평군 ‘별빛물빛 콘서트 in 양평’, 지평면 행복한 가게 개소,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등

‘별빛물빛 콘서트 in 양평’
양평문화재단(이사장 박신선)은 오는 4월 19일(토) 오후 3시, 양평문화재단 2층 씨어터양평에서 「별빛물빛 콘서트 in양평」 4월 정기 공연으로 현대무용 〈모던 스테이지〉를 개최한다.
현대무용 장르의 난해함을 해소하고, 관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출연 무용수가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목소리로 전달하는 렉처 퍼포먼스의 형태로 공연을 올릴 예정이다. 또한 2024년 Mnet에서 방영된 “스테이지파이터”에 최종 3위를 기록한 김혜현 무용수가 출연한다.
극한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무용수들의 몸짓으로 표현하여 끊임없이 달리는 무한경쟁 사회 속에 “나는 어떤 Player 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네 명의 무용수들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출연팀인 ‘나니댄스프로젝트’는 동시대의 환경과 관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고찰을 움직임으로 풀어내는 현대무용 단체다. 이번 공연의 총안무를 맡은 육하운 대표는 “현대무용의 난해함을 극복하기 위해 무용수들의 섬세한 움직임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평문화재단 박신선 이사장은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동시대의 거울로 삼길 바라는 마음이며, 이번 공연은 매우 기대되는 작품이다.”라고 전했다. 초등학교 이상부

터 관람할 수 있고, 전석 무료 공연이다. 양평문화재단 홈페이지(ypcf.or.kr)를 통해 4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예약을 받는다. 문의 031-775-6738
지평면 행복한 가게 개소
지평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정근)는 4월 8일(화) 주민자치센터 내에 「지평면 주민자치센터 행복한 가게」를 개소했다. 「행복한 가게」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을 기증받아 재사용함으로써 물자 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실현하고, 지역 이웃과 나눔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무인점포이다.
운영 기간은 4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로, 지역주민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등 누구나 자유롭게 물품을 기증하고 구입할 수 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조정근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과 홍종분 지평면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정근 지평면 주민자치위원장은 “판매 수익금은 전액 지역 내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으로, 앞으로 「행복한 가게」가 이웃간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홍종분 지평면장은 “자원 재활용과 이웃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한 가게」는 지평면 내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최초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에서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지난 3월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이나 두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에서 회복되더라도 환자의 30~50%는 손상된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뇌염 예방 수칙으로는 ▲야간 야외활동 자제 ▲밝은색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사용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 권고 ▲예방접종 실시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물웅덩이 등 고인 물 없애기 등이 있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에 따라 모기 물림에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매력 있는 양평

2025년 가족생활 -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지원

잡(job)을 준비! 취업

신청기간 : 2025. 4. 8.(화) 오전 10시 ~ 완료시까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반 (결혼이민자 7명) 선착순 마감

이 미용사 기초반 (결혼이민자 5명) 선착순 마감

도전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일상을 함께하는 양평 길라잡이 양평군 가족센터

양평군 가족센터

영산조용기자선재단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특강

한국어 실력 향상, 한국 생활 적응, 자신감 UP!

모집 기간 : 4월 7일(월) ~ 4월 16일(수)

지원방법 전화접수 후 홈페이지 신청

문의처 가족상담팀 031-775-5951

장소 : 강상동 하나센터

반 명	일 정	내 용	강 사
문법활용반	4. 23.(수) ~ 8. 20.(수) 10:00~12:00	문법을 활용한 말하기와 쓰기 강화반	양영희
중급심화반	4. 24.(목) ~ 8. 28.(목) 10:00~12:00	'마을 사전'을 활용한 자녀감정 이해와 감정표현	김주옥
토픽과격증반	4. 25.(금) ~ 9. 5.(금) 10:00~12:00	토픽 II 준비반	김영조

서종경기육아나눔터

k-pop방송댄스

일 정 : 5월 7일(수)~5월28일(수)4회기-(16:00~17:00)

장 소 : 서종경기육아나눔터 (매주수요일)

대 상 : 초등 1,2,3학년 6가정(선착순모집)

접수날짜 : 4월14일(월) 13시~4월23일(수) 마감시까지

프로그램 : 1회기~3회기 k-pop방송댄스
4회기-연습, 조별동선, 영상촬영

접수방법 : 양평군가족센터 홈페이지->프로그램안내->프로그램신청->k-pop방송댄스

보호자, 자녀 모두 신청 필수

문 의 : 경기육아나눔터 전담원 070-7865-3322

일상을 함께하는 양평 길라잡이 양평군 가족센터



다양한 활동으로 빛나는 다문화 자녀들!

하남시가족센터, 다문화공유학교 다~가치 아카데미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3월 24일 오후 센터 3층 설레임실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공유학교 다~가치 아카데미’ 개강식을 진행했다.

다문화공유학교는 아이들의 욕구조사를 반영하여 흥미가 높았던 오케스트라(바이올린, 플룻), 생활한국어(만들기로 배우는 역사), 체험학습, 연주발표회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3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80회기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 측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악기연주를 통한 자기표현 능력 향상,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 안정성 증진, 인지 능력 향상, 사회성 발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케스

트라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소통과 화합, 협동심 및 리더십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한국어 교육을 통해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문병용 센터장은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오케스트라 합주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하는 연주를 통해 아이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아이들이 자제심을 가지고 정서적 사회적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관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031-793-2993

이지은 기자

하남시, 홍역 예방 당부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하남시보건소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도 올해(2025년 4월 4일 기준) 홍역 환자가 34명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은 해외유입 사례에 대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해외여행이 늘고 외국인의 국내 방문도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 등 공기 중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주요 증상은 고열, 기침, 콧물, 결막염, 그리고 온몸에 퍼지는 발진 등이며, 잠복기는 7일에서 21일까지로 비교적 긴 편이다. 특히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예방접종이다. 하남시보건소는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을 2회 접종하면 대부분의 경우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한 이후 발열이나 기침,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 안내를 받고, 병원을 방문하기 전 홍역 의심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자차나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 내에서는 격리를 통해 가족 간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강용 하남시보건소장은 “홍역은 예방접종만으로도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화목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베트남수채화 전시회 개최해



하남시가족센터는 지난 4월 7일 다목적 가족소통교류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수채화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베트남 수채화 작가 김재민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남시가족센터 3층(10점)과 4층(7점)

에서 총 17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전시된 작품들은 베트남의 일상과 문화를 담고 있다. 김재민 작가는 2019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본부 초대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화목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수채화 전시회’를 개최했다. 다수의 수상 경력도 가지고 있다.

김재민 작가는 “베트남 수채화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고, 그림을 통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베트남 문화와 일상에 대한 공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전시회를 관람한 왕 모 학부모는 “얼마 전 가족과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바다에서 그림과 같은 모자를 쓰고 놀다가 왔다”며 “그림을 그린 작가님이 베트남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에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그림이 유화가 아닌 수채화라는 점도 흥미를 끄

는 요인이었다. 이번 전시는 4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시간 내에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문병용 센터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센터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교류의 열린 공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센터는 모든 가족의 성장과 안정을 지원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위로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고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선과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추후 전시 이용객을 위한 이벤트도 계획할 예정이다. 문의 031-792-2993

이지은 기자

전 세대 위한 '북스타트 꾸러미'

신장도서관, 4월 14일부터 상반기 접수 시작

하남시 신장도서관이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북스타트(Bookstart)' 사업에 참여해 4월 14일부터 상반기 책 꾸러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생애 첫 그림책과 함께하는 독서 경험을 통해, 가정 내 사회적 육아를 지원하고 세대별 문화복지 실현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북스타트의 취지에 따라, 하남시는 유아에서 초등학교, 나아가 시니어 세대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독서 꾸러미 6단계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의 체계인 ▲북스타트(3개월~18개월) ▲북스타트 플러스(19개월~35개월) ▲보물상자(36개월~7세) ▲책날개(초등 12학년)에 더해, 올해는 신생아를 위한 '북스타트 베이비(0~2개월)'와 어르신을 위한 '북스타트 시니어(만 60세 이상)' 단계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처럼 대상을 확대한 배경에는 모든 세대가 책을 통해 삶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길 바라는 하남시의 철학이 담겨 있다. 특히 갓 태어난 아이가 책과 함께 첫걸음을 내딛고, 시니어 세대가 다시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 설계는 책을 매개로 한 세대 연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꾸러미는 단계별 그림책 2권과 친환경 에코백, 북스타트 가이드북으로 구성된다. 각 도서는 북스타트코리아가 엄선한 도서들로, '너에게 세상을 줄게', '곰 생각 별 생각', '안녕하세요? 우리동네 사장님

들', '아씨방 일곱 동무' 등 세대와 감성을 고려한 작품들이 담겼다.

특히 시니어를 위한 그림책에는 한국 정서가 녹아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 오랜만에 책을 다시 접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정서적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장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꾸러미 단계를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수령 장소는 하남시립도서관 9곳(미사·신장·나물·위례·세미·덕풍·일가·어울림작은도서관·덕풍스포츠파크도서관) 중 선택할 수 있어 시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꾸러미는 5월 중 배부되며, 수령자에게는 추후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하남시는 올해 총 1,310개의 꾸러미를 배부할 계획이며, 5월 북스타트 주간과 9월 독서의 달을 중심으로 도서관 내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책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도서관 속 다양한 문화 경험까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진일순 평생교육원장은 "하남시는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모든 세대가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평등한 문화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독서를 시작하는 아이는 물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니어 세대까지 도서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31-5182-1158

이지은 기자

운전면허로 새로운 기회 연다

하남시가족센터, 운전면허 자격증 교육 실시



하남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21일 금요일 결혼이민자 9명을 위한 운전면허 자격증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남고용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교육은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 자격증은 많은 직종에서 필수적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운전면허 학과 교육은 5월 16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2시간씩 총 50시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한층 더 강화된 교육

커리큘럼으로 학과 교육과 더불어 필기시험 합격자들에게 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전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기대가 크다. 이번 교육은 운전면허 취득 이외에도 취업시장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 꼭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이력서 작성법, 면접 전략, 이미지 메이킹, 면접 스피치 등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내용이 포함됐다.

직장생활의 필수 역량인 아래 한글 프로그램 교육은 3월 28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12회 진행될 예정이다.

문병용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31-793-2993 송하성 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언제나 도민 곁에 있습니다!!


지역상담소는?
도민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원과 도민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도민, 공무원, 단체가 도의회와 함께 모여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도민을 위해 어떤 방법이 이루어지나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조례 제정 및 예산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도의회 원투 공간이 왜 이곳에 있나요?
도민의 접근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한 공간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누리집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기타 지역상담소 문의
031-8008-7271~7275





요리로 결혼이민자 초기정착 도와요!
평택시가족센터, 초기정착지원 ‘한(韓)크룻 이야기’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서부 권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을 지원하는 요리 프로그램 ‘한(韓) 크룻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평택시로컬푸드재단 2층 실습실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요리를 통해 한국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18일 진행된 첫 수업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지닌 결혼이민자 20명이 참여해 ‘버팔로링’과 ‘등뼈

찜’을 함께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실습 과정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며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넓혔다. 특히 처음으로 등뼈찜을 만들어본 참가자는 “보기엔 어려워 보여 걱정했는데,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고 재밌었다”라며 “가족에게 해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요리를 통해 한국 사회와의 접점을 자연스럽게 넓히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신청해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오는 5월부터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정의 한국 국적 자녀(7세~18세) 대상이다.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지원 사업’은 자녀의 학원비, 교재구입비, 독서실 이용료,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비, 자격증 응시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자녀 나이에 따라 초등학교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의 카드 포인트가 연 1회 NH농협카드로 지급된다. 5월 신청자는 6월, 7월 신청자는 8월에 대상자로 통보된다. 지급된 카드 포인트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 기간과 신청 횟수가 변경된 만큼, 신속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031-660-7477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다문화 아동 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 모집기간** 단,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2025년 5월, 7월 / 6월, 8월 대상자 발표 (주말, 공휴일 제외)
- 지원내용**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NH농협 카드 포인트 지급
- 신청장소**
평택시 안중을 서동대로 1557, 3층
- 문의** *예약 접수 후 방문/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통합지원팀 담당자 (031-660-7477)
- 지원대상**
평택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한국국적 7세~18세 자녀
※평택시가족센터 회원가입 필수※

가구원 수	25년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종합
2인	3,933,000	139,817	70,053	141,260
3인	5,026,000	179,415	121,707	181,663
4인	6,098,000	219,196	154,802	222,471
5인	7,109,000	252,203	196,416	256,716
6인	8,065,000	288,617	243,019	295,134
7인	8,989,000	320,322	280,625	330,765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2025년 내 · 외국인 문화소통 프로그램

터프팅 원데이 클래스

"터프팅"이란?
머리카락 또는 잔디가 촘촘하게 모인 '디발'을 뜻하는 'Tuft'에서 따온 말로,
잔디를 심듯이 '터프팅 건'을 이용해 천 위에 실을 심는 직조 기법을 말합니다.
JT*C 드라마 '사랑의 이해'에서도 소개되어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내·외국인 비율, 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선발함

- 체험내용** 터프팅 체험(나만의 그림톡, 키팅 만들기) - 비용 무료 - 1가족 1명만 가능
- 진행일시** 2025. 4. 22.(화) 10~12시(A팀) / 24.(목) 10~12시(B팀)
- 진행장소** 평택시가족센터 서부분소(안중을 서동대로 1557, 3층)
- 모집기간** 2025. 4. 3.(목) ~ 15.(화) / 16일(수) 참여자 발표
- 모집인원** A팀(22일) 20명 / B팀(24일) 20명 (하나만 선택, 선착순 X)
- 모집관련** 센터 프로그램 신규 참여자 우선(노쇼 이력, 중복참여 등 배제)
-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신청

★ 문의: 통합지원팀 031)660-7472

A팀

B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평택시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이제 시중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금융업무 가능

Financial services available at 6 banks with 'mobile alien registration card'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registered foreigners will be able to use the 'mobile alien registration card' to open bank accounts and handle financial transactions starting March 21. Prior to this, the Ministry of Justice began issuing mobile alien registration cards (including permanent residence cards and residence registration cards) to registered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on January 10.

Anyone who is a registered foreigner over the age of 14 and has a smartphone in their name can receive a 'mobile alien registration card.' After installing the 'Republic of Korea Mobile ID Card' app on your smartphone, you can receive the card by touching the smartphone to the alien registration card with an electronic chip (IC), or by taking a picture of the QR code.

Meanwhil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established a blockchain-based 'mobile ID common foundation' for safe and convenient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identity verification, and has sequentially introduced a mobile driver's license (January 2022), mobile national veterans' certificate (August 2023), and mobile alien registration card (January

2025) after going through legal revisions and safety inspections with relevant ministries.

In line with this, the financial sector and financial authorities have also reorganized related business procedures and systems so that consumers can conveniently and safely transact with financial institutions.

Registered foreigners who have been issued a 'mobile alien registration card' can use it to open accounts and handle financial transactions at six banks, including Shinhan, Hana, IM Bank, Busan, Jeonbuk, and Jeju, starting March 21. Jeonbuk Bank also allows for non-face-to-face transactions.

In addition, three banks, including Woori, Gyeongnam, and Gwangju, will be able to use mobile alien

registration cards for financial services in April, Nonghyup Bank in May, and Kookmin Bank in June. As of last year, the number of long-term foreign residents in Korea exceeded 2.04 million, and the demand for financial services is also increasing.

It is expected that the financial sector and financial authorities' measures will make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financial transactions more convenient for registered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e financial authorities plan to continue to support registered foreigners using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o use the 'Mobile Alien Registration Card' in the future.

〈한글 기사 33면, 인터넷에서 파파야 스토리를 검색하세요〉

파파야스토리

6 은행ов принимают «Мобиль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иностранца» для финансовых операций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 지원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объявило, что с 21 мар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с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Мобиль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иностранца» для открытия счетов и других финансовых операций в банках.

Ранее, с 10 янва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начало выдачу «Мобильн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иностранца» (включая карту постоянного резидента 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проживания) дл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ране.

Получить «Мобиль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иностранца» может любой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й иностранец старше 14 лет, имеющий с смартфон, оформленный на свое имя.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установит

ь приложение «Мобиль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либо приложить к смартфону удостоверение с встроенным электронным чипом (IC), либо отсканировать QR-код.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создало единую платформу «Мобиль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на основе блокчейна для безопасного и удобного подтверждения личности как при личном посещении учреждений, так и в онлайн-реде.

В рамках этой инициативы ранее были введены мобильные водительские права (январь 2022), мобиль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ветерана (август 2023), а с января 2025 года запущено «Мобиль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иностран

ца». В связи с этим финансовые учреждения и надзорные органы также провели реформу систем и процедур, чтобы потребители могли безопасно и удоб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финансовыми услугами.

С 21 мар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имеющие «Мобиль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иностранца», с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его для открытия счетов и других финансовых операций в шести банках: Shinhan, Hana, IM Bank, Busan, Jeonbuk и Jeju.

В Jeonbuk Bank также доступны дистанционные финансовые операции.

Кроме того, с апреля такие банки, как Woori, Gyeongnam и Gwangju, начнут принимать «Мо

биль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иностранца», NH Nonghyup подключится в мае, а Kookmin Bank – в июне.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длительно проживающих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евысило 2,04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по данны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что ведет к увеличению спроса на финансовые услуг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анное нововведение значительно упростит как личные, так и дистанционные финансовые операции дл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В дальнейшем финансовые органы планируют расшири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обильн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иностранца» на другие финансовые учреждения.

〈한글 기사 33면〉 파파야스토리

육아만렙! 아빠 레벨업 클래스

평택시가족센터, 아버지와 함께 체험활동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4월 5일 영유아가 자녀를 둔 아버지 20명(10가족)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 활동 ‘육아만렙! 아빠 레벨업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식목일을 맞아 실내에 조성된 숲속 공간에서 진행됐으며, 흙을 직접 만지고 타조알, 매추리알, 계란 등 다양한 알을 탐색하는 체험으로 문을 열었다. 아버지와 자녀는 함께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체험 후 알을 재료로 한 찜닭 요리 만들기도 이뤄졌다. 아이들은 손과 도구를 사용해 재료를 손질하고, 어려운 과정에서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협동을 통해 요리를 완성했다. 함께 만든 요리는 맛있는 식사이자, 아버지와 아이 모두에게 오래 기억될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흙을 밟는 것을 싫어하는 데 잘 참여하는 모습이 좋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아들과 단둘이 무언가를 해본 게 처음이다. 아들이 주변에 자랑할 정도로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센터는 4월, 12월에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마음알기로 더 건강한 가족!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평택시 관내 부모 50명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프로그램 ‘우리가족 마음알기’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의 기질과 성격, 부모 자신의 양육 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심리검사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이후 해석상담은 화상 또는 전화 등 온라인 방식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심리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해석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양육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의 기자

온가족보듬사업 사례관리 모임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3월 28일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한 자조모임 ‘마음정원’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한부 모가족) 4명(베트남 출신 2명, 캄보디아 출신 2명)이 참석해 간단한 식사와 다과를 함께하며 모임의 취지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정원’ 자조모임은 총 10회로 구성됐으며, 정기모임은 4회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모임을 통해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와 위로를 제공함으로써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취약·위기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과 다양한 욕구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적·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 031-660-7476

김영의 기자

다문화자녀 짝꿍 멘토링 발대식

평택시가족센터, 대학생 멘토와 활동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3월 15일 센터 다목적실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도란도란 짝꿍 멘토링’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평택 생활권 대학생 멘토 10명과 다문화가족 자녀 멘티 10명이 관심 분야에 따라 1:1로 매칭돼 참석했다. 멘토와 멘티는 서로의 참여 동기를 공유하며 한 해 동안 함께할 멘토링 계획을 수립하고, 첫 만남의 설렘 속에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멘토링은 학습지도와 심리·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주 1회 진행되며, 향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친밀감을 쌓아갈 예정이다.

센터는 발대식 전 멘토를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과 멘토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

간을 마련했다. 멘티에게는 학습전략 검사를 기반으로 한 결과 해석 활동이 제공되어 자기주도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발대식에 참여한 한 대학생 멘토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멘토링 활동을 통해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한 멘티는 “새로운 선배와 친구가 생겨 기쁘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재미있는 활동도 기대된다”며 환한 웃음을 보였다.

김성영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학교 생활의 선배로서 멘토들이 멘티들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라며 “멘티들도 선배들의 따뜻한 손길을 잘 따라,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존감 향상과 학습·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운영 중이다.

김영의 기자

딸기 체험하며 달달한 소통!

평택시가족센터, 내외국인 문화소통 진행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29일 지역 내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 10가정을 대상으로 ‘딸기 수확 및 딸기 케이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가 가족들은 계절 작물인 딸기를 수확하고 직접 케이크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딸기 수확법을 배우고, 직접 수확한 딸기를 활용해 가족의 개성이 담긴 딸기케이크를 만들며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더욱 깊이 다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다문화가족 참여자는 “아이와 함께 딸기를 따고 케이크를 만들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라며 “이런 체험을 통해 다른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 감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자연 속에서 함께 웃고 움직이니 아이도 너무 즐거워했고, 저에게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

2025년 경기동아리활성화지원사업

글빛, 캘리그래피 동아리

캘리그래피 동아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캘리그래피를 통해 글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어 보아요

참여안내

대상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 10명

일시

2025년 4월 17일 ~ 10월 20일
매월 셋째주 목요일 (월 1~2회)

내용

캘리그래피 9회 활동, 전시회 1회

장소

다가온(평택2로 125, 1층 다가온)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홈페이지-프로그램
신청-'글빛,캘리그래피동아리'신청

참가비

1인 2만원

문의전화

031-692-2461

*모집인원 중 다문화가족 8명, 비다문화가족 2명 구성

*동아리 일정은 변동 가능 있음.

*동일 국적 최대 2명 제한. 단, 인원미달시 제한없이 신청 가능

평택시가족센터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물품기부 캠페인

ESG

참여방법

1. QR을 통한 온라인 사전 접수 ▶ 접수기간: 4/8(화) 09:00~ 4/30(수) 18:00
2. 어린이날 행사 당일, 평택시가족센터 부스에 직접 기부

일시

2025년 5월 3일 (토) 10:00~15:00

장소

이충례포츠공원 '평택시가족센터' 부스 (부스 위치는 추후 문자안내 예정)

기부물품

의류, 잡화, 도서, 가전 등 새상품에 가까운 깨끗한 물품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기부 가능 물품'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부하신 물품은 '다가온 나눔장터'를 통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됩니다

문의

가족교육팀 031-615-3965, 031-615-3962

◆물품기부참여자 선착순 140명에게는 'EM비누' or '커피박도아벨' 선물 제공 ◆
(기부물품 수량에 상관없이 사은품은 1개 제공되며, 소진 시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M비누
(선착순 70명)

커피박도아벨
(선착순 70명)

사전 접수 QR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

Home Sweet Home

즐거운 나의 집으로

모집기간 | 2025년 4월 14일(월) ~ 4월 30일(수)

지원내용

모국방문 경비지원(왕복항공료 및 체류비용)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 다문화가족 30명(가족당 최대 4명)
* 법률상 혼인관계가 형성된 가족
* 평택시 거주 2년 이상(25.04.14. 기준)
* 최근 5년(20.01.01.이후) 이상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가족

신청방법

방문접수(평택시 서정로 295, 북부복지타운 1층)
* 제출서류는 '신청 안내 사항' 확인
* 서류 누락 시 신청 불가

기타문의

가족지원팀 T.031)615-3952

신청안내

신청안내

가족지원팀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항

1. 지원대상(모집기준)

공통조건

· 평택시 거주 2년 이상(2025.04.14.기준)
· 최근 5년 이상(2020.01.01.이후) 이상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가족
* 법률상 혼인관계가 형성된 가족만 해당
* 해당 기간 내 결혼이민자 모국 포함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가족

우선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 중위소득 80% 이하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가족(만 18세 이하 3자녀 이상)
·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가족

가점대상

· 우선대상자(30점)
·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80% 이하 일반가족(10점)
* 2025년 소득기준표(건강보험료) 참고
· 최근 7년(2018.01.01.이후) 이상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가족(10점)

2. 제출서류

필수서류

· 모국방문 지원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결혼이민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중)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 조회기간: 2018.01.01.~ 2025.04.14.
* 모국방문 지원사업 신청 가족구성원 모두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 우선대상 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등)

가족지원팀

평택시가족센터

즐거운 ‘슈퍼튼튼 성장체육’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4호점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공동육아나눔터 2.4호점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3세~6세 아동과 보호자 80명을 대상으로 ‘슈퍼키즈 성장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유아체육 프로그램은 유아의 신체 활동량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신체 활동과 두뇌 발달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신

체 유연성을 높이는 동작을 시작으로, 소근육 발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포함됐다. 스펀지 망치판, 균형 감각을 키우는 복합 평균대, 대근육 놀이 도구인 왕팬이, 스테킹(컵 쌓기), 발과 눈의 협응력을 기르는 축구, ‘봄에 만나는 눈사람’ 놀이 등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됐다.

평택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배려와 규칙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긍정적인 인격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역량 전문성 향상 상담사례회의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4월 11일 가족상담사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2차 가족상담 사례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사례회의에는 총 19명의 가족상담사가 참석해 부부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상담사들은 체계적 가족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과 상담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상담사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가족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취약·위기 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과 다양한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가족 기능 회복은 물론, 정서적·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온가족보듬사업 보듬매니저 파견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4월 1일부터 온가족보듬사업 일환으로 사례관리 대상 가정에 보듬매니저를 파견해 본격적인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이번에 파견된 보듬매니저는 총 7명으로, 사례관리 대상 가정의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 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정서 지원을 한다. 한국어를 비롯한 기초 교과목 지도는 물론, 놀이와 미술을 활용한 정서 지원 활동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다.

보듬매니저는 단순한 학습지도 외에도 생활 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멘토 역할 등을 수행하며, 각 가정의 필요에 맞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긴급 위기 상황에 직

면한 가족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 돌봄 지원에도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자녀와의 접촉이 단절된 부모를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센터는 앞으로도 ‘소통, 공감, 돌봄, 동행, 행복’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평택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행복 파트너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역량강화

평택시가족센터, 상담통역 주제로 교육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3월 18일 ‘상담통역’을 주제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대상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윤리 의식과 역할의 이해를 돕고, 실제 통역 지원 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서포터즈는 “그동안 통역을 하면서도 단순히 말을 옮기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상담 현장에서 통역자의 태도와 윤리, 그리고 민감한 감정과 상황을 다룰 때의



주의점까지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게, 내담자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통역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정 폭력, 이혼, 경제적 문제 등 위기 상황에 부딪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오감놀이 즐기며 이유식도 배움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4호점 진행



우고 특수 교구를 활용해 소근육 발달과 촉각 자극을 유도함으로써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며 애착 형성을 돕고, 가정에서 육아하는 부모 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서로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4호점은 앞으로도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평택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공동육아나눔터1호점 031-654-0903, 2호점 031-611-0308, 3호점 031-668-9445, 4호점 031-654-8449)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과과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공동육아나눔터 1~4호점에서 오감놀이 프로그램 ‘헬로 오감국’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7개월~22개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총 48회 운영된다.

‘헬로오감국’은 ‘벼를 심어요’, ‘토끼는 당근을 좋아해’, ‘개구리가 깨어났어요’, ‘모래야 모래야’, ‘튀밥놀이’, ‘꽃이 피었어요’ 등 계절과 연계된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오감놀이와 이유식 레시피를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데 그치지 않고, 촉감·냄새·색깔·맛·소리 등 다섯 가지 감각을 활용한 놀이를 통해 아이의 감각 발달을 도모하는 방법을 배

2025

Giáo dục tiếng hàn
theo tiêu chuẩn

Đối tượng

Người di trú kết hôn (F-6, F-5, nhập quốc tịch) sống tại Yongin. Mỗi lớp 15 người (theo thứ tự đăng ký)

Cách đăng ký

※ Phải đăng ký cả 2 bước dưới đây!! (quét mã QR bên dưới)
1. Đăng ký lớp tiếng hàn sau khi gia nhập thành viên trang chủ trung tâm
2. Đăng ký mẫu đơn google (online)

Kiểm tra trình độ

Tiến hành kiểm tra trình độ người đăng ký lớp 1, lớp 2 (online)

Nội dung

Tư vấn : 070-7477-8540 (Nhóm dự án 1 배경운)

Tên lớp	Thứ	Giờ học	Lịch trình	Phương pháp và địa điểm
Lớp 1	thứ ba, thứ năm	10:00~13:00	25/2 (thứ ba)-22/5 (thứ năm)	Ủy ban quận Cheoin :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Lớp 2		13:00~16:00		
Lớp 3 (giáo dục tiếng hàn để nuôi dạy con cái)	thứ hai, thứ tư	13:00~16:00	24/2 (thứ hai)-26/5 (thứ hai)	Ủy ban quận Cheoin :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Lớp 4 (giáo dục tiếng hàn để nuôi dạy con cái)		10:00~13:00		
Lớp 3 (Giáo dục tiếng hàn để nuôi dạy con cái)	thứ ba, thứ năm	10:00~13:00	25/2 (thứ ba)-22/5 (thứ năm)	Online(ZOOM) (ngày cuối : 용인시가족센터)
Lớp ôn quốc tịch (Tiếng hàn thứ 1, 2, 3)	thứ hai, thứ tư	13:00~16:00	24/2 (thứ hai)-26/5 (thứ hai)	Online(ZOOM)
Lớp Topik ôn thi topik 3, 4	thứ ba, thứ năm	10:00~13:00	25/2 (thứ ba)-22/5 (thứ năm)	Trung tâm gia đình Yongin (수지구 법조로 230 상현동)
Lớp Topik nâng cao ôn thi topik 5, 6		13:00~16:00		

* Tùy theo tình hình mà địa điểm và lịch trình có thể thay đổi hay tiến hành online

2025

分阶段 韩语教育

报名对象

居住在龙人的 结婚移民者(F-6, F-5, 取得国籍) 每班15人 (依照报名顺序, 报满即止)

申请方式

※ 以下2项必须申请!! (扫描QR)
1. 注册용인시가족센터网站并申请韩国语课程 (以结婚移民者的名义加入)
2. 谷歌(网上) 申请

水平测试

1,2 阶段的申请者, 需事先参加线上韩语能力测试

教育内容

详情请询 : 070-7477-8540 (事业一部 배경운)

반 명	요일	운영 시간	학기 일정	진행 방법 및 장소
1阶段	周二	10:00~13:00	2/25(二)~5/22(四)	처인구청 :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2阶段	四	13:00~16:00		
3阶段 水平 (为指导子女学习的 韩语教育)	周一	13:00~16:00	2/24(一)~5/26(一)	처인구청 :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4阶段 水平 (为指导子女学习的 韩语教育)	三	10:00~13:00		
3阶段 水平 (为指导子女学习的 韩语教育)	周二	10:00~13:00	2/25(二)~5/22(四)	온라인(ZOOM) (마지막날 : 오프라인 용인시가족센터)
预备国籍 (简单有意思的韩语)	周三	13:00~16:00	2/24(一)~5/26(一)	온라인(ZOOM)
TOPIK 课程 (3~4级 准备)	周二	10:00~13:00	2/25(二)~5/22(四)	용인시가족센터 : 수지구 법조로 230 (상현동)
TOPIK 深化 (5~6级 准备)	四	13:00~16:00		

* 根据机构情况的变化上课时间和地点可能会发生变化, 望悉知。

2025

수준별 한국어교육

모집대상

용인시 거주 결혼이민자(F-6, F-5, 귀화자) 각 반별 15명씩(선착순)

신청방법

※ 아래 2가지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QR코드 스캔)
1.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한국어교육 신청 (결혼이민자 이름으로 가입!!)
2. 구글폼(온라인) 신청

레벨테스트

1단계, 2단계 신청자 레벨테스트 진행(온라인)

교육내용

문의 : 070-7477-8540 (사업1팀 배경운)

반 명	요일	운영 시간	학기 일정	진행 방법 및 장소
1단계	화, 목	10:00~13:00	2/25(화)~5/22(목)	처인구청 :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2단계		13:00~16:00		
3단계 수준 (자녀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육)	월, 수	13:00~16:00	2/24(월)~5/26(월)	처인구청 :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4단계 수준 (자녀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육)		10:00~13:00		
3단계 수준 (자녀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육)	화, 목	10:00~13:00	2/25(화)~5/22(목)	온라인(ZOOM) (마지막날 : 오프라인 용인시가족센터)
국적 취득대비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월, 수	13:00~16:00	2/24(월)~5/26(월)	온라인(ZOOM)
토픽과정 (토픽 3~4급 대비)	화, 목	10:00~13:00	2/25(화)~5/22(목)	용인시가족센터 : 수지구 법조로 230 (상현동)
토픽심화 (토픽 5~6급 대비)		13:00~16:00		

* 기관 사정에 따라 장소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음.

모집!

용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PLUS UP

모집!

모집대상 및 기간

• 모집대상 : 용인시 거주 다문화가족 10가족
자녀연령: 미취학~초등 4학년
** 4학기 모두 100% 참석 가능 우선 접수 예정
** 초등 5학년~중학생은 8월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방법 및 문의

• 지원방법 : QR코드 or 홈페이지 or 유선 신청
** 참여자 모두 홈페이지 신청해야함.
• 문의처 : 070-7477-9201 사업1팀 임소연

프로그램 일정

• 일 정 : 1회기 5월 10일 (토) 10:00~14:00 2회기 6월 14일 (토) 10:00~14:00
3회기 7월 12일 (토) 10:00~14:00 4회기 8월 09일 (토) 08:00~16:00 (나들이)
• 장 소 : 용인시 가족센터 3층 다목적강의실 2 및 외부

소통 프로그램

사진활동(찰라, 우리다움)
가족의 사진을 활용한
정서 탐색과 소통의 시간

협동 프로그램

푸드테라피
함께 요리하며 즐기는
소통과 협력의 시간

친화 프로그램

나들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친밀감 상승

용인특례시

가족센터

자주문화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지난 4월 6일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함께 외국인주민을 위한 무료 피부 질환 및 건강검진을 했다. 이번 검진은 3년째 이어지는 협력 프로그램으로, 14개국에서 온 외국인주민 9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검진은 피부질환을 포함해 기본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통역 지원이 제공되어, 참가자들은 보다 편안하고 정확한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날 참여한 외국인주민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데, 무료로 자세한 진료와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용국 센터장은 “외국인주민들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함께 3년째 이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관계자는 “외국인주민의 피부 건강과 기본 의료 접근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이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자조모임, 문화교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의 기자

스리랑카 이주민과 전통문화의 만남

용인외복 스리랑카 자조모임, 전통문화 체험 나들이 진행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지난 4월 6일 스리랑카 자조모임과 함께 용인대장금파크를 방문해 전통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스리랑카 출신 이주민과 그 가족 등 20여 명이 참여해 한국의 전통문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조선시대 궁궐 세트를 배경으로 구성된 전통문화 공간을 자유롭게 탐방하며,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전통적 건축양식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가까이서 접하며, 낯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쌓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스리랑카 자조모임 리더인 아키라, 라히루 씨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전통문화를 경험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할 기회가 되어 기쁘다”라며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준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용국 센터장은 “이번 전통문화 체험은 스리랑카 자조모임이 공동체로서 더욱 결속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 자조모임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리랑카 자조모임은 향후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전통문화 체험은 공동체 활성화의 시작점이자,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넓히는 데 있어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었다.

김영의 기자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cấp visa F-2 vì giúp những cụ bà di tản trong vụ cháy rừng lớn!

Bộ Tư pháp đã quyết định sẽ cấp visa thường trú dài hạn (F-2) cho một công dân Indonesia, là anh Sugi Anto (31), người đã giúp sơ tán người dân trong vụ cháy rừng ở Uiseong.

Tại Hàn Quốc vừa qua, với các vụ cháy rừng quy mô lớn đã xảy ra ở 11 khu vực kể từ ngày 21 tháng 3, gây ra nhiều thiệt hại đáng kể.

Trong đó, có vụ hỏa hoạn đã xảy ra ở Uiseong và Andong vào ngày 22 tháng 3 và đám cháy vẫn tiếp diễn cho đến thời gian gần đây, gây ra nhiều thiệt hại to lớn và cũng đã khiến 22 người thiệt mạng.

Tại thời điểm đó, anh Sugi Anto, một thuyền viên làm việc tại một ngôi làng ven biển ở Huyện Yeongdeok, Tỉnh Gyeongsangbuk, đã công những người già khó di chuyển trên lưng và đưa họ đến một đê chắn sóng cách đó 300 mét cùng với những người dân làng khác khi đám cháy rừng bắt đầu từ Uiseong lan sang Huyện Yeongdeok.

Vào thời điểm đó, có nhiều người trong số khoảng 60 cư dân của ngôi làng đang ở nhà hoặc đang ngủ.

Anh Sugi Anto đã vào nhà đánh thức rồi lần lượt công 7 người cao tuổi ra ngoài.

Anh Sugi Anto cho biết “Vì bà tôi không thể đi nhanh nên tôi đã đến nhà và công bà ra ngoài”.

Leo, một công dân Indonesia làm việc cùng làng với Anh Sugi Anto, cũng đã giúp đỡ trong việc giải cứu người dân.

Một người dân làng 90 tuổi được Anh Sugi Anto công và di tản cho biết, “Tôi ngủ thiếp đi khi đang xem TV, nhưng bị tỉnh giấc vì tiếng hét rằng có hỏa hoạn bên ngoài. Khi tôi nhìn ra ngoài cửa, Sugi Anto đã ở đó, và tôi đã có thể thoát khỏi ngôi nhà trên lưng Sugi Anto. Nếu Sugi Anto không ở đó, có lẽ tôi đã chết rồi.”

Một viên chức chính phủ cho biết, “Chúng tôi đã quyết định sẽ cấp visa đóng góp đặc biệt (F-2) cho công dân Indonesia đã giúp sơ tán người già trong vụ cháy rừng này. Chúng tôi bày tỏ lòng biết ơn sâu sắc nhất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đã liều mình cứu mạng những người hàng xóm”.

Visa F-2 là loại hình visa với điều kiện khá khó khăn, cho phép người nước ngoài làm việc ở bất kỳ nơi nào và có thể mời gia đình đến sống cùng.

Được biết, Anh Sugi Anto đã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cách đây 8 năm theo diện visa lao động và làm nghề đi thuyền. Anh cũng đã có vợ và con ở quê nhà. Và visa này của anh cũng sẽ hết hạn sau ba năm.

파파야스토리

스마트농업으로 생산력 향상!

연천군, 국내 최초 위성 기반 스마트농업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주)새팜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인공위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0.7m 고해상도 농림 위성 영상과 AI분석 기술을 결합했다. 기존 농림위성의 3.0m 해상도보다 4배 이상 정밀하며, 작물 생육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시범사업은 경기도 육성 벼 신품종인 ‘연진’ 재배단지 120농가와 연천군 콩연구회 재배단지 50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시범요인은 자동

농작업 이력 관리 및 영농일지 제작, 일별 위성 촬영을 통한 생육 상태 모니터링, 생육 이상 증상 조기 발견 및 대응, 카카오톡 기반 알람 및 상담서비스 등이다.

연천군은 2023년 농촌진흥청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지구 협약을 맺고, 2024년부터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공위성 기반 스마트농업 시스템 도입으로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인공위성 기반 농업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업인의 농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힘든 농업 인력구조에서 스마트농업 도입으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국내 유일 역사·문화 복합체험

연천군, 선사체험마을·구석기체험숲 개장



연천군은 오는 11월까지 전곡리 유적 일원에서 '선사체험마을'과 '구석기체험숲'(캠핑장)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연천군에 따르면 선사체험마을과 구석기체험숲(캠핑장)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구석기 라이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역사·문화 복합 체험지다.

약 7600㎡ 규모로 조성된 체험 공간 선사체험마을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구석기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생생히 전달하고자 오감형 체험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요금은 5000원이며 구석기 의상체험, 막집 만들기, 펜서기 제작시연, 장신구 제작, 동굴벽화 탁본, 발굴체험, 사냥체

험, 주먹도끼빵 만들기, 구석기 바비큐 등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구석기체험숲(캠핑장)은 연천 선사박물관 뒤편 3만㎡ 부지에 조성된 자연 친화형 체류형 시설이다. 다양한 유형의 캠핑 사이트와 편의시설이 조성돼 가족 단위 힐링 공간으로 제격이다.

선사체험마을 및 체험숲은 네이버 예약 또는 현장접수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선사체험마을과 체험숲캠핑장 운영을 통해 역사 교육은 물론, 가족 단위 여가 활동과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다.

이지은 기자

2025년 연천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안내

사업내용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한 1:1 맞춤형 교육,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
모집기간	연중 수시 모집
모집대상	부모교육서비스: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자녀생활서비스: 3세~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운영시간	주 2회기 서비스 제공, 1회기당 2시간 서비스 제공
서비스회기	부모교육서비스: 40회기 제공(생애주기별 총 3회(1회 당 40회기) 지원 자녀생활서비스: 80회기 제공 단, 특별한 사유(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가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청장 승인 후 추가 1회(최대 6개월, 40회기 연장 가능)
교육장소	대상자 가정
문의	가족지원팀 방문교육담당자 (031-835-0093/070-7458-0105)



Năm 2025 Trung Tâm Gia Đình Quận YeonCheon

Hướng Dẫn Giáo Dục Tại Nhà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Nội dung dự án	Dành cho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gặp khó khăn khi đến trung tâm. Giáo dục 1:1 phù hợp với nhu cầu cá nhân, Giáo viên sẽ đến tận nhà để giảng dạy.
Thời gian tuyển dụng	Tuyển dụng quanh năm
Đối tượng tuyển dụng	Dịch vụ giáo dục phụ huynh: dành cho người di trú kết hôn có con dưới 12 tuổi. Dịch vụ hỗ trợ sinh hoạt cho con: từ 3tuổi-12tuổi trở lại con cái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con em nhập cảnh giữa chừng
Thời gian hoạt động	Dịch vụ được cung cấp 2 buổi mỗi tuần, mỗi buổi kéo dài 2 giờ.
Buổi dịch vụ	Dịch vụ giáo dục phụ huynh: Cung cấp 40 buổi học (hỗ trợ tổng cộng 3 lần theo từng giai đoạn của vòng đời, mỗi lần 40 buổi). Dịch vụ hỗ trợ sinh hoạt cho con: Cung cấp 80 buổi học. Trong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gia đình có từ 2 con trở lên, gia đình có thành viên khuyết tật, hộ gia đình nhận trợ cấp sinh hoạt cơ bản, gia đình đơn thân, v.v.), có thể được gia hạn thêm 1 lần (tối đa 6 tháng, 40 buổi) sau khi được sự chấp thuận của chủ tịch quận/huyện/thành phố.
Địa điểm giáo dục	Tại nhà đối tượng
Liên hệ	Hỗ trợ gia đình tối 1 người phụ trách giáo dục tại nhà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031-835-0093/070-7458-0105)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삶의 질 높인다

과천시, 1인가구 및 중장년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과천시가 '1인 가구 생활 요령 바구니', '남성 이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춘 '맞춤형 생활 프로그램'을 개설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1인 가구 프로그램은 과천시여성비전센터에서 올해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혼자 사는 시민들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자기돌봄 능력을 높이고 주거 공간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해당 프로그램에는 시민 30여 명이 참여해, 효율적인 세탁 방법과 정리 수납 요령 등을 배웠다. 특

히 분리 세탁이 어렵고 세탁 주기가 짧은 1인 가구의 생활 특성을 반영한 세탁 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참가자들부터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실용적인 정보가 많아 도움이 되었다", "1인 가구에 알맞은 제품 사용법과 생활용품 이용법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남성 이음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은퇴 후 고립되기 쉬운 중장년 남성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요리 활동을 통해 또래 남성과 교류하고, 가정 내 새로운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가족 소통 교육도 함께 받는다. 지난 29일 진행된 교육에서는 '커피 향으로 여는 소통'을 주제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가족 간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천시는 생애주기별, 가구 형태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

속 운영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와 중장년 남성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을 위한 실용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6월부터는 '1인 가구 자산관리 비결', '건강 돌봄 프로그램', '식생활 개선 식사' 등 후속 프로그램이 차례대로 이어질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에 1인 가구와 중장년 남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실용성과 정서적 지지를 아우르는 시민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모두가 존중받고 연결되는 과천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프로그램 관련 정보와 신청은 과천시여성비전센터 누리집(www.gcwom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02-3679-2009를 통해 가능하다. 향후 운영 일정과 세부 내용은 누리집에 별도 공지된다. 송하성 기자

과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과천시는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6월 3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7대의 전기 이륜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우선순위 2대, 배달용 5대, 일반물량 10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해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에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전기 이륜차를 사는 경우, 보조금 상한 범위 내에서 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장애인, 차상위 이하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은 국비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하성 기자



대한의 문, 영웅이 열다



광복 80년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국가유산 탐방**

일시 5월 18일(일) 09:00~18:00 대상 센터 등록 초등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선착순 30명 내용 덕수궁·서대문형무소 탐방, 차량이동, 점심 식사, 체험 제공 장소 덕수궁 및 서대문형무소	비용 무료 접수 4월 28일(월)~5월 2일(금) 홈페이지 신청 가족구성원 홈페이지 신청 필수, 모집 완료시 접수 종료 문의 02.503.070 협력 (주)문화위드유더블
---	--

'말'을 타며 배우는 집중력!

과천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



과천시는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160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강습비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다.

승마체험은 의왕시에 위치한 '인덕원승마스쿨'에서 운영되며, 참가 학생들은 주 1회씩 총 5회에 걸쳐 승마 기본자세, 안전수칙 등의 이론교육과 함께 말 끌기, 보행 등의 실습 강습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4월 8일부터 17일까지로, 호스피아 누리집(www.horsepia.com)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대상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며, 결

과는 4월 22일 개별 통보된다. 올해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며, 기존 참여자는 사업 잔여 인원 발생 시 추가 선정된다. 이번 승마체험은 기승능력인증제를 반영해 수준별 맞춤형 강습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체계적인 승마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동기 부여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체험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16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강습비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회공익 승마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8일부터 17일까지 시청 기후환경과를 통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기후환경과(02-3677-2347)로 문의하거나 호스피아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이주배경 학생에 한국어 집중교육!

화성글청, 화성오산글빛한국어공유학교 입학식 개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강은이)는 화성시 관내 이주배경을 가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글빛 한국어공유학교’ 입학식을 지난 4월 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빛 한국어공유학교’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지고 입학하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증가를 대비해 운영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준비하는 학교밖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을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입학식에서 강은이 센터장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따뜻한 응원과 환대를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황당연 화성특례시 여성다문화과장은 “화성시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은 “글빛 한국어공유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중.고등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부족과 학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들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

을 대상 교육을 담당하며, ▲한국어 집중 교육 ▲기초 교과 과정 ▲대안 교과 ▲심리.정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과정별로 60일 또는 90일간 운영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과정은 학력 인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원적 학교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육도 개강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지난 4월 1일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적응지원 사업 한국어 교육을 개강했다.

한국어교육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주 5회(월~금요일) 수준별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반을 개설.운영한다.

최근 화성특례시는 동포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주민의 증가로 학령기에 한국어로 들어오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언어, 문화, 교육 환경의 차이를 줄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및 사회 이해,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주배경을 가진 자녀들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한편 화성시글로벌센터는 화성시 봉담읍 화성시민대학 내 위치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발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진로.진학 상담 ▲취업 및 자립 지원 ▲심리정서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글청, 찾아가는 욕구별 한국어교육 ‘핑동! 스쿨’ 시작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지난 3월 21일부터 화성시 관내 8개 기관(동화초등학교 외 6개교 및 은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과 ‘찾아가는 욕구별 한국어 교육(핑동! 스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제히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다.

‘핑동! 스쿨’은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들이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해 학교 생활 및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향남, 안녕, 봉담, 동탄, 양감 등 5개 권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태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배경학생 30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된다.

강은이 센터장은 “본 사업을 통해 학교가 이주배경 학생들에 대한 입학 장벽을 낮추고, 교사와 학생 모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화성시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전담기관으로, 화성시 봉담읍 화성시민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는 관내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진로 상담 ▲심리.정서 지원 ▲중등 위탁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2025년 경기도, 화성시 지원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사회 적응지원

한국어 교육

Korean Language Class

대상 Targets	교육 일시 Date of Class
학교밖 이주배경 청소년 (24세 이하) Out-of school 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s (Below 24-year-old)	1학기: 25.4.1 ~ 7.25 2학기: 25.7.28 ~ 11.28
장소 Location	교육 시간 Time of Class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Hwaseong Global Youth Center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12)	월~금 13:00~17:00 Mon. to Fri. 13:00~17:00
	교육비 Tuition Fee
	전액무료 (교재비 본인부담) Fully Free (Textbook expense self-pay)

신청 문의 Application inquiry

031-238-1103

변화의 중심
기회의 공간

화성특례시
HWASEONG SPECIAL CITY

지구별 화성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제 시중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금융업무 가능

한국 정부,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사용 허용



한국 정부는 등록외국인도 3월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어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 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이 가능해요.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 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 및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1월), 모바일 국가보훈증(2023.8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2025.1월)을 순

차적으로 도입한 바 있어요.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어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부터 이를 이용해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전북은행은 비대면 업무처리도 가능해요.

또한 우리, 경남, 광주 등 3개 은행은 4월에, 농협은행은 5월에, 국민은행은 6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금융업무가 가능해져요.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204만명을 넘어서면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에요.

〈중국어 하단, 베트남어 5면, 러시아어 23면, 태국어 5면, 영어 23면〉

과과야스토리

6家银行可用“电子外国人身份证”办理金融业务 14세 이상 등록외국인 이용 가능

韩国政府表示, 登记的外国人也可从3月21日起使用“电子外国人身份证”在银行办理开户等金融业务。

此前, 法务部从今年1月10日开始, 以在国内居住的外国人为对象, 发放了电子外国人登记证(包括永久居住证、住所申报证)。

只要是拥有本人名义智能手机的14岁以上登记的外国人, 都可以获得“电子外国人身份证”。

在智能手机上安装“大韩民国电子身

份证”应用程序后, 并将内置电子芯片(IC)的外国人登陆证接触手机或扫描二维码即可办理。

此前, 行政安全部为了安全、便利的线上线下身份认证, 基于区块链技术构建了“电子身份证通用平台”, 与相关部门一起经过法令整顿和安全性检查等, 依次引进了电子驾照(2022. 1月)、电子国家报勋证(2023. 8月)、电子外国人身份证(2025. 1月)。

为此, 金融圈和金融当局也整顿了

相关业务程序和系统, 以便消费者能够方便、安全地与金融公司进行交易。

获得“电子外国人登记证”的外国人从3月21日开始可以利用该证在新韩、韩亚、IM银行、釜山、全北、济州等6家银行办理开户等金融业务。全北银行还可以进行非面对面业务处理。

另外, 4月份友利银行、庆南银行、光州银行将开通该业务, 5月份农协银行、6月份国民银行也将支持“电子外

国人登记证”办理金融业务。

以去年为基准, 居住在国内的长期滞留外国人超过了204万名, 对金融服务的需求也在增加。

根据金融圈和金融当局的此次措施, 居住在国内的登记外国人的面对面及非面对面金融交易将更加便利。

金融当局计划未来继续支持其他金融公司的登记外国人使用“电子外国人登记证”办理金融业务。

〈한글 기사 상단〉 과과야스토리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HWASEONG SPECIAL CITY

다문화가족 자녀
미술멘토링
멘토 모집

서로에게 힘이되는 특별한 경험

모집기간

수시모집

활동기간

매월 첫째주 토요일 10:00~11:30
총 8회기(5/10, 6/7, 7/5, 8/2, 9/6, 10/11, 11/1, 12/6) 예정

활동내용

매월 첫째주 토요일 1시간 30분 이상 미술멘토링 활동
다문화가족 자녀 저학년멘토와의 정기적인 소통 및 피드백

활동혜택

봉사 활동 시간 인증

활동장소

화성시가족센터 강의실(향남)

모집대상

미술멘토링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성인

신청방법

화성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선정발표

개별 연락

공표사항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적정 사유 없이 총 2회 이상 결석 시 중도 탈락
픽업 및 차량 지원 불가

문의처

070-8831-8621 전화사업팀

가정
센터

화성시가족센터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HWASEONG SPECIAL CITY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결기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2025 화성시 1인가구
중장년 수다살롱

모집기간

수시모집

모집대상

화성시 1인가구 중장년 만40세~64세
※ 화성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자 1인가구

신청방법

큐알코드 신청
※ 신규참여자 우선 선정
※ 개별신청 및 단체신청(자체 구성) 가능

사업안내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위한 관심 분야별 동아리 활동 지원

구성인원

5그룹 모집(4명~5명 구성)

활동조건

11월 까지 활동
월 2회 이상 활동(회기별 활동일지 작성 필수)
오리엔테이션, 12월 종결평가회 참석 필수!

지원금액

월별 인원에 따른 차등지원

지원분야

주제별, 연령대별 활동 희망 분야
취미(독서, 여행, 악기 등), 자기개발(언어, 자격증 등)
성별, 40대~60대 연령별 등

선정발표

추후 개별 연락

개인신청

단체신청

문의

전화사업팀 070-8831-8621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정
센터

화성시가족센터

그림 "책" 놀이터

유튜브 동화책TV

회기	교육 시간	주제
1회기	매주 화요일/목요일 10:30~12:30 대상: 결혼이민자	그림책,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2회기		우리 아이 언어 자극! 말놀이 그림책 따라잡기
3회기		몸으로 표현하는 그림책 놀이
4회기		색으로 감정을 말해요!
5회기		요리 그림책으로 소통해요!
6회기		엄마나라 이야기 들려주기
7회기		아이와 함께 읽는 법
8회기		집에서 쉽게 하는 그림책 놀이
9회기	6/14 토(대상:다문화가족)	가족의 그림책 명랑 운동회

모집기간

2025. 4. 14 월 ~ 5. 9 금. 다문화가정 10가정

모집대상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및 자녀

교육장소

(향남) 화성시가족센터 강의실

초대강사

유튜브 동화책TV 안영순 강사

신청방법

QR코드 접수 후 센터홈페이지 프로그램 신청 개인별 안내
070-7774-7080 (특성화사업팀)

(신청서 QR코드)

가정
센터

화성시가족센터

2025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내일(JOB)학교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과정 참여자 모집

(문의) 070-8831-2227

신청하기

참여 대상

화성시 거주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한국어중급이상) 12명
※신청인원 초과 시, 선발 과정을 통해 교육참여 및 취업의지가 확고한 자 선발

교육 기간

5월 20일 ~ 11월 11일 / 매주 화,목 10:00~13:00

교육 장소

화성시가족센터 내 교육장(화성시 향남읍 평2길 16)

신청 기간

2025년 4월 14일(월) - 5월 9일(금)

신청 혜택

전 과정 무료 이용
교육시간 40시간 기준으로 80%이상 출석 시 교육 훈련비 지급

신청 방법

구글폼신청 (큐알코드 스캔)

사전교육과정

취업준비교육,
직장문화 이해교육,
컴퓨터 교육 등
5월 20일(화) ~
7월 29일(화) 예정
(총60시간)

직업훈련과정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강사자격과정
8월 19일(화) ~
11월 11일(화) 예정
(총69시간)

가정
센터

화성시가족센터



빵과 디저트 만들며 성취감 키워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제과제빵 1기 수료식 개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병희)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 제과제빵 과정 1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참가자 10명 중 9명이 최종 수료의 기쁨을 안았다.

제과제빵 과정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직접 빵과 디저트를 만들며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하고 이를 친구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제과제빵 실습으로 반죽을 다듬고,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순간을 지켜보며 작은 변화 속에서도 큰 기쁨을 얻었다. 함께 만든 빵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교류와 친목도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빵을 함께 나누고, 그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성장을 축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 수료생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라며 “직접 만든 빵을 친구들과 함께 나눌 때 가장 큰 기쁨을 느꼈다”고 밝혔다.

손병희 센터장은 “이번 과정이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참가자들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함께 만들고 나누며 즐거운 성장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병희)가 주최·주관하는 ‘2025년 해피스타트 자기개발교육 한국요리 과정’이 지난 4월 6일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의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요리 실습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으며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첫 수업에서는 ‘간장찜닭’을 함께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생소한 재료 손질부터 양념 배합, 조리까지 과정을 하나하나 배우며 요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했다. 완성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웃음과 대화가 오가는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교육 종료 후에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해 수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병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배움의 기쁨을 나누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캄보디아 고유의 전통 기리며 교류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캄보디아 공동체와 쫄츠남 행사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병희)는 지난 3월 30일 장안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캄보디아 공동체와 함께하는 ‘쫄츠남(설축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캄보디아 공동체 200여 명이 참석해 고유의 전통을 기리고, 함께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캄보디아 전통 불교의식 및 탁발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개회식에서는 캄보디아 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본 행사에서는 캄보디아 전통춤 공연, 전통놀이, 선물 나누기 등이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사장 외부에는 부스를 설치해 캄보디아 전통 음식을 제공하며 참가자들이



고국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캄보디아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국 문화를 공유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는 기회가 됐다. 또한, 지역 내 내빈 초청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손병희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캄보디아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운영한 만큼 더욱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공동체가 서로 문화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화성특례시, 문화로 물들다 권역별 문화행사 참여해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025년 특례시 출범을 기념해 시민들이 더욱 풍성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권역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권역별 콘서트는 시민들이 수준 높은 대중문화 공연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시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인기 가수들의 무대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권역별 콘서트는 지난 3월 21일 동탄 여울공원(동탄권)에서 열린 ‘화성특례시민의 날 콘서트’를 시작으로, ▲7월 봉담2세대체육공원(북부권) ▲8월 새솔동 수노을중앙공원(서부권) ▲9월 향남읍 도원체육공원(남부권)에서 개최된다.

또한, 권역별 콘서트와 함께 권역별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준비돼 있어,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예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탄권에서는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인 동탄호수공원과 도시공원을 배경으로 ▲화성특례시 출범 특별한 콘서트 ▲화성 루나빛축제 ▲화성 재즈페스티벌 ▲동탄역 아트스테이션 ‘에코 숲 아트스타쉽’ 전시 등 감성적인 공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행사가 펼쳐진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자립, 검정고시 지원해요

화성시가족센터, ‘2025년 검정고시 학습 지원’ 사업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2025년도 제2회(8월)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학습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학력 인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하며, 초·중·고등과정 중 본인이 원하는 학습 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은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주 3~4회, 회당 약 3시간 30분씩 진행되며,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지난해에도 2024년 초·중·고등고시반을 운영해 3명이 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문 검정고시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한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미경 센터장은 “결혼이민자의 학력 취득 기회 확대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이 꿈을 실현하고, 전문직 진출 및 취업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정고시 학습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화성시가족센터(070-8831-8618)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1~25일 사이에 발안만 세시장으로 이전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센터 전화연결이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가족센터에서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화성외복, 이주배경청소년 위한 심심풀이(心心 Free) 운영해요



삼성꿈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심심풀이(心心 Free)’ 프로그램이 운영

된다. 이를 위해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영희)를 중심으로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사단법인 올웨이즈 등 5개 기관이 협력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체능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화성시뮤지컬단과 협력해 뮤지컬 활동을 진행한다.

총 16명의 전문 강사가 투입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체력 증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마음 건강 교실’, ▲심리적 안정과 자기 발견을 위한 ‘우리라는 울타리’ 등이 운영된다. 또한 ‘학생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11월 말 뮤지컬 소극장 무대 발표회를 목표로 운영된다. 손영희 센터장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 가족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
화성시 가족센터가 함께 만듭니다.

[2025년 검정고시 대비]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학습자 모집

★ 월 수강료(3~5만원) 및 교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선착순 5명 모집)
★ 문의 070-8831-8618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로 한국어를 공부해요!
- 검정고시 합격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요!
- 모든 수업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해요!

과정	요일/시간	과목
초등	월, 화, 수 19:00~22:20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영어
중등	월, 화, 수 19:00~22:20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영어
고등	월, 화, 수, 목 19:00~22:20	국어, 사회, 수학, 과학, 한국사, 기술가정, 영어

화성특례시 가족센터 화성시가족센터

“상큼한 봄의 시작은 화성시가족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준비해요”

#그림책 놀이터로 소통해요

화성시가족센터는 ‘그림책 놀이터’를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한다.

‘그림책 놀이터’는 다문화가정 10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5월 9일까지 모집한다.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와 자녀 대상이다. 교육 장소는 화성시가족센터 강의실(향남)이며, 유튜브 동화책 TV 안성순 강사가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1회기 ‘그림책,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2회기 ‘우리 아이 언어 자극! 말놀이 그림책 따라잡기’ ▲3회기 ‘몸으로 표현하는 그림책 놀이’ ▲4회기 ‘색으로 감정을 말해요!’ ▲5회기 ‘요리 그림책으로 소통해요!’ ▲6회기 ‘엄마나라 이야기 들려주기’ ▲7회기 ‘아이와 함께 읽는 법’ ▲8회기 ‘집에서 쉽게 하는 그림책 놀이’ ▲10회기 ‘가족의 그림책 명랑 운

동회’(6월 14일 다문화가족 대상)를 주제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특성화사업팀(070-7774-7080)으로 하면 된다.

#문화다양성이해교육 참여자 모집

화성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내일(JOB)학교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과정’ 참여자를 5월 9일까지 모집한다.

화성시 거주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한국어 중급 이상) 12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기간은 5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다.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육이 이뤄진다.

사전교육과정으로 취업 준비 교육과 직장문화 이해 교육, 컴퓨터 교육 등이 총 60시간 진행되며, 직업훈련과정은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강사자격과정이 총 69

시간 운영된다. 신청은 홍보지 쿼알코드를 스캔해 구글폼으로 하면 된다.

#다문화 자녀 미술 멘토 모집

화성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 미술멘토링 멘토를 수시 모집한다. 미술멘토링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성인 대상이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된다. 총 8회기 진행될 예정이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시간 30분 이상 미술멘토링 활동과 다문화가족 자녀 중 저학년 멘티와의 정기적인 소통 및 피드백이 진행되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된다. 신청은 화성시가족센터 홈페이지서 하면 된다. 선정발표는 개별 연락되며, 활동 장소는 화성시가족센터 강의실(향남)이다. 문의 070-8831-8621

김영의 기자